



#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69호  
2025년 02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왼쪽 사진부터) 1월 8일 베니라이트 부스에서 임성규(가운데) 동문이 동료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순회(오른쪽) 서울대 컴퓨터 공학부 교수가 대표로 있는 마이스맥스 부스에서 하 교수가 방문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신상도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가 대표로 있는 이노렘 부스에서 신 교수가 방문자들을 맞고 있다.

## SNU 파빌리온 설치하고 15개 동문 업체 참가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는 위암을 포함한 소화기암에 대해서 암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존율을 끌어올리는 시스템입니다.”

매년 1월초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전자기기 종합전시회 CES2025에서 장수연(인문 94)동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프리베노틱스사의 AI 기반 실시간 내시경 솔루션을 소개했다. 전자기기 종합전시회는 매년 연초에 열리면서 그해 전세계에 선보일 전자제품이나 전자관련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CES 2025 행사는 지난 1월7일 시작돼 3박4일간 전세계 3400개 업체가 참가해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상담하고 트렌드를 확인하는 자리로 ‘서울에서 못만난 업계 경쟁자를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관련 업계에서 많이 참석했다. 지난해부터 주목을 끌고 있는 로봇, AI같은 대단위 자본이 필요한 제품부터 아이디어를 상용화한 수도 없이 많은 헬스케어 제품 등 매우 다양한 상품군이 소개됐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삼성, LG, SK 등 대기업은 물론, 분야별로 중견 기업 등이 대거 참석해 한국에서 출장은 행사 참가자와 일반 참관인 등이 셀 수 없이 많고 행사장 여기 저기에서 한국어가 들리고 외국인 참관자들을 위해서 한국 액센트가 드러나는 영어 설명이 울려 퍼지기도 했다. 이미 규모만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다.

### 서울대 동문들의 CES 참가 현장을 찾아서

#### 소화기 암 관리 시스템 개발 프로베노틱스 LED이용한 광치료 상용화한 베니라이트

CES 행사장을 방문한 장병희 편집위원은 서울통합관에 부스를 마련한 프리베노틱스사의 장수연 동문과 코리아 파빌리온 부스의 베니라이트의 임성규(공72) 동문을 만났다. 이 두사람은 현재 미주동문회 산하 기업넷에 등록돼 카톡단체방을 통해 연락이 됐다. 또한 서울대가 마련한 SNU파빌리온의 동문 업체들을 방문했다. 동문 업체들을 소개한다.

**\*프리베노틱스**  
장수연 동문이 대표로 있는 프리베노틱스



1월8일 프리베노틱스 부스에서 장병희 편집위원과 장수연(오른쪽) 동문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스(Prevenotics)는 소화기암 예방을 위한 AI기반 실시간 내시경 솔루션으로 회사 이름 자체가 예방(prevention)과 진단(diagnostics)에서 따온 회사로 이번에 혁신상을 수상했다.

장 대표는 “소화기 암이 발견이 어렵고 진행단계에 따라 생존율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면서 “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아이디어의 시작을 소개했다.

프리베노틱스가 이번 CES에서 선보인 ‘Prevenotics-G Pro’는 전암 단계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예방과 진단 관리를 제공하는 AI 기반의 실시간 내시경 진단 솔루션이다. 최첨단 AI 알고리즘과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결합해 시스템은 개인화된 다중 모달 감시 기능을 통해 환자 맞춤형 진단과 예방을 가능하게 돕는다.

이날 장 대표는 미국의 UCLA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B2B2C 모델이 될 것이고 미국내 함께 연구할 연구병원도 있다고 밝혔다. 1~2년내 미국 진출을 확신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사람에 비해서 위암 발병율이 높은 한인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대 출신 선배들의 성원과 지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웹사이트: prevenotics.com

#### **\*베니라이트**

전자 공학과 72학번인 임성규 동문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베니라이트(Benilight) 사도 benefit from light에서 회사명 및 상품명 따왔다. CTO인 임 동문은 20년 넘게 LED로 광치료(photobio-modulation)분야에서 일해 왔다. 그의 제품은 적색과 근적외선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를 정상화 시킨다고 설명했다.

통증 및 세포에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천안에 본사가 있지만 사업 확대를 위해서 수년내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는 “사실 유사한 제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값

<3면 CES로 계속>

###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 미주동창회 홈페이지 뉴스탭 메뉴서 확인 가능

## 동창회보 온라인으로 보는 법

회보 발간하면 동문들에게 이메일로 알려 PDF 종이 버전 스캔하면 쉽게 볼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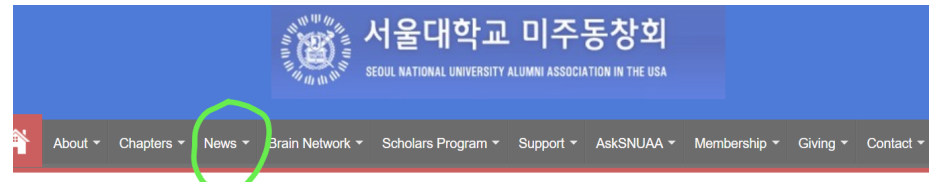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가 지난해부터 발송하고 있는 동창회보 발행 알림 서비스를 통해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보 웹사이트(snuua.org)를 통한 동창회보 PDF버전에 대한 다운로드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종이로 발행되는 동창회보의 경우 보관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창회는 보다 간편한 PDF버전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동창회 웹사이트에는 PDF버전

으로 지난 2009년 7월부터 발행된 동창회보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2001년 6월부터 2년간의 종이버전 스캔 버전도 제공되고 있다.

PDF버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사이트(www.snuua.org)에서 [뉴스]탭을 찾고 첫 메뉴인 [미주동창회보]를 선택하면 된다. 혹은 프론트 화면 상단에서 구동되는 슬라이더에 보여지는 동창회보 1면 스크린 샷도 누르면 바로 동창회보 PDF버전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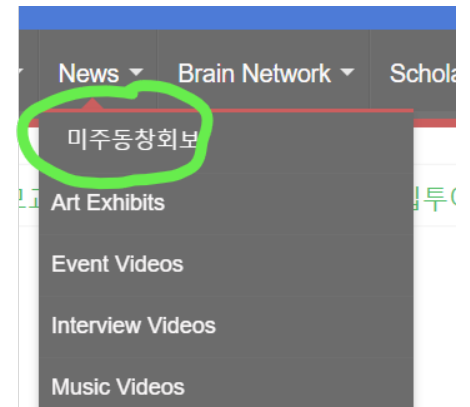


### 〈사진 참조〉

한편 지난 1월호는 2375부가 USPS메일로 배송됐고 이메일 알림은 2563명에게 전송됐다. 이메일 알림을 받고 메일을 확인하는 비율은 그룹별로 다르지만 평균 46.2~59%에 달한다. 또 홈페이지를 찾는 비율은 4.9~7%에 달한다.

한편 발송 담당에 의하면, 매달 평균 8명이 종이 우편 발송을 취소하고 있고 5명이 발송을 요청하고 있다.

장병희 편집위원



# 강사 초청 범위 넓히고 포럼 시간 '오후'로 변경

## 미주동창회 SNU 포럼 2025년 일정

### 매달 두번째 토요일 개최 한국 전문가도 강연 참석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학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온 SNU 포럼(좌장 김재훈 공대72)이 2025년을 맞아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서게 됐다.

김재훈 동문은 “새해를 맞아 예전부터 동문들이 요청해온 포럼 시간을 오후 5시(서부시간)로 옮겼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 전역의 동문은 물론, 한국에 있는 동문들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매월 2번째 토요일에 개최되는 SNU 포럼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부시간 오전 11시여서 골프 애호인을 포함한 동문들이 토요일 오전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동문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올해부터 오후 5시로 변경되면 동부에서는 오후 8시, 한국에서는 오전 10시로 강연 참여가 편해 질 수 있다.

또한 지난 16년 동안 미국 위주로 운영하던 SNU 포럼은 행사 참가 대상을 한국까지로 넓혔다. 따라서 초청 강사가 한국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국과의 시간차를 고려하여 포럼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결국 동문들의 요청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간이 조정된 것이다.

한편 2025년 1월 포럼은 지난 1월 11일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김재만 회장이 ‘한국자동차 산업의 어제, 오늘과 내일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2월 이후 2025년 포럼 일정이다.

**\*2월 (Seoul):** 정규석 박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초대원장, 한국이동통신 연구원장) - 세계 최초 CDMA 기술 상용화와 이동통신의 미래

**\*3월 (Seoul):** 이우일 박사 (대한민국 국가기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의 과학기술 현황과 정책 방향

**\*4월 (Los Angeles):** 최운화 은행장 (Uniti 은행) - 세계경제의 동향: 미국, 한국경제를 중심으로

**\*5월 (Los Angeles):** Dennis Hong 교수 (UCLA 교수) - 인공지능기반 자율 로봇 시스템 (AI-Enabled Autonomous Robot System)

**\*6월 (Seoul):** 안상훈 박사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 - 한국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미래

**\*7월 (Los Angeles):** Ah-Hyung Park 교수 (UCLA Engineering Dean,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 신 탄소경제와 청정에너지 전환 (Carbon Economy and Clean Energy Transition)

**\*8월:** 휴강 (서울대 워싱턴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및 여름 야유회)

**\*9월 (San Diego):** 김인철 박사 (Vice-Chairman, Kainos Medicine) - 바이오 기술과 산업의 현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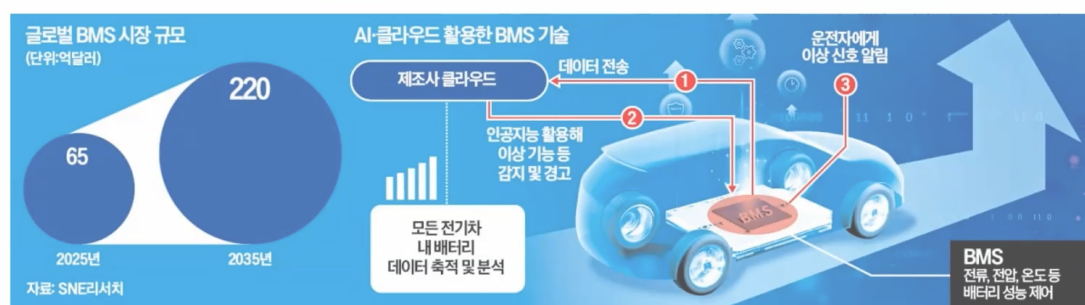
**\*10월 (Seattle):** 김재훈 박사 (보잉 연구소 Executive Technical Fellow) -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창조적 혁신의 비밀 (Loonshots: the Creative Innovation)

**\*11월 (Houston):** 정철균 박사 (Schlumberger) -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 (석유, 가스) 문제

**\*12월:** 휴강 (서울대 워싱턴 동창회 정기 총회 및 송년파티)

장병희 편집위원

### 2. 오늘의 이야기 > 현대차 그룹 BMS 기술 승부수



#### BMS 성능

-전류, 전압, 온도, 전압편차, 절연저항, 전류 및 전압 변화, 과전압 및 저전압, 순간단락 등 성능 제어

#### 데이터 전송 / 감지 경고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최적 조건에서 배터리 성능이 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

#### 운전자 정보 알림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원격제어센터로 데이터 전송, 고객에 문자 메시지 발송

-심각한 문제로 판단될 경우, 즉시 입고 및 긴급 출동을 안내하는 메시지도 자동 발송

#### 전기차 포비아 차단 위한 결단

- ✓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 K배터리의 포비아 차단 목표
- ✓ BMS 기술을 통한 전기차 화재의 원천 차단
- ✓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BMS기능 고도화 계획
- ✓ BMS를 통해 배터리의 모든 정보를 자사 클라우드에 모은 뒤 AI로 분석 → 안전을 관리하는 온보드-클라우드 통합 안전관리

지난 1월11일 열린 SNU포럼의 모습. 김재만 회장이 ‘한국자동차 산업의 어제, 오늘과 내일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 센추리 펀드기금 120만여 달러 운영방안 논의

## 종신이사 가입비 중 3분의 2는 기금 적립 머니마켓에 넣고 후임 회장에 운영권 넘겨

센추리 펀드 기금 운영 회의가 17대에서는 처음 열렸다.

지난 1월18일 센추리 펀드 기금 회의가 줌으로 온라인 상에서 개최됐다. 센추리 펀드는 미주동창회의 100년 대계를 위한 기본 펀드로 종신이사 회비의 2/3가 적립된다. 종신이사 회비 3000달러가 납입되면 이중 2000달러는 센추리펀드로 나머지 1000달러는 당해 집행부의 일반 회계로 넘어가 운영비로 사용된다.

센추리 펀드 운영위원회는 현직 회장을 비롯해 직전 회장, 차기 회장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2명은 현 회장이 임명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회장단 집행부가 회의에 참석한다.

1월18일 회의에는 노명호 위원, 황효숙 위원, 백정현(음대66) 위원이 구두 위임한 가운데 이상강 회장과 최경석 위원이 참가했고 사회자로는 장병희 동문, 배석자로 백옥자(음대 71) 집

행부 총무국장이 참석했다.

이상강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100만달러가 넘는 센추리 펀드 기금을 너무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하지만 투자를 하는데 리스크가 너무 커서 역대 회장들이 투자를 꺼려왔기에 이 자리를 마련한 것” 이라고 말했다.

현황 보고에서는 현 17대 동창회장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2023년 5월에 CD에 있던 자금이 전임 노명호 회장에 의해서 6개월 연장됐고 이후 2023년 10월에 이상강 회장의 한국 방문 당시, 임춘택 재무국장에 의해서 1년짜리 CD로 갱신됐고 지난 2024년 10월에 서야 운용이 가능해졌다. 지난 12월31일 기준 잔고는 1,202,303달러다.

이날 회의의 목적은 3가지 방안, CD(이율 4.15%)에 넣기, 투자 상품에 넣기, 머니마켓(이율 4%)에 넣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지난 1월18일 열린 센추리 펀드 기금 운용을 위한 줌 모임 화면.

최경석 위원은 “17대 회장단의 남은 임기가 너무 짧아서 투자나 CD에 넣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 것 같다”며 “3가지 방안 중 하나인 머니마켓에 넣어 둘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상강 회장이 “머니마켓에 넣었다가 임기를 마치는 2025년 6월말이 지나면 후임 황효숙 회장의 주도로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며 “그것이 가장 현

실적이고 후임 회장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이상강 회장이 주장한대로 머니마켓에 두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결정 됐다.

이날 열린 펀드에 관한 회의는 16대에서는 이뤄지지 않았고 17대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행사였다.

장병희 편집위원



### <1면 CES에서 계속>

싸게 판매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성능과 내구성 면에서 우리 제품이 중국산을 완벽하게 압도한다” 고 밝혔다. 웹사이트 : benilight.com

### \*SNU파빌리온

서울대에서 마련한 SNU파빌리온에는 서울대 대학원 등에서 시작한 스타트업 업체들이 참가했다. 올해 CES에는 10개 업체가 참가했고 5개 업체는 전시만 했다. 대부분 기술이 기반인 회사들이다.

참가 업체는 ‘배터리 소재인 나노코팅’ 전문인 코팅솔루션포유(대표 안경현), ‘반도체 시뮬레이션’ 업체인 인테그라 세미컨덕터(대표 신형철), ‘로봇 손 기술’ 전문인 토모로 로보틱스(대표 장병탁), ‘타이어 모니터링 시스템’ 을

만든 BANF(대표 애덤 성한 유),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 업체인 마이스맥스(MySmax), 처방약 관리시스템인 필토크(PillTalk)를 구축한 PMACH(대표 하워드 이), 스마트링 전문 액서체인(대표 지균철), 신체 장기에 칩을 심는 기술을 가진 프로바랩스(대표 하성재), 비침범 뇌압 측정 기술을 가진 이노렘(Innolem, 대표 신상도), 차량의 스포셜 조명을 특화한 모플랏(대표 김태웅)이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외에도 바이오로보틱스 레이보터리(대표 조규진), 넥스트MI(대표 김도년), RS랩(대표 정대홍), T-ROH(대표 예성준), 비스큐어(대표 이서규)는 전시만 했다.

마이스맥스사 대표로 참가한 하순희 컴퓨터 공학부 교수는 “사물 인터넷 기기를 개별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자동 통제가 된다”면서 “특히 옛지베이스 개발돼 굳이 인터넷이 필요하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된다” 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

이노렘사 대표로 참가한 서울대 의대 응급의학과 신상도 교수는 “응급실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응급 환자에 대한 처치를 긴급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면서 “AI를 이용해서 엄청난 수량의 뇌파 이미지를 학습해서 믿을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고 말했다.

라스베가스=장병희 편집위원



CES 2025에서 눈길을 끌었던 TV제조업체 TCL사의 부스에서 참가자가 큰 화면의 TV를 소개하고 있다.

# 우주항공 전문가서 특허법 변호사된 동창회 일꾼

정성일 시카고 지부 회장 (공대 항공공학과 86)

젊은 동문 모임인 관악클럽 결성해 이끌어  
“경험 살려 젊은 동문 적극 참여 이끌어낼 것”

정성일 시카고 지부 회장(사진)은 시카고 지역 80학번 이후 젊은 동문들이 주축이 돼 관악클럽을 결성했을 당시부터 동창회 일에 발 벗고 나선 시카고 동창회의 일꾼이다. 2015년 관악클럽 첫 모임에서 총무를 맡아 2개월에 한 번씩 모임을 이끌었고 2016년에는 관악클럽 회장이 돼 젊은 동문들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정성일 회장은 동문회 모임이 좋았다. 많은 선후배 동문들을 만나면서 미국생활에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사회적 교류를 하며 연대감을 가질 수 있었고 서로의 비즈니스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좋았다.

정성일 신입 회장은 “선배님들이 회장을 맡으라고 여러차례 권유를 하기도 했지만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저조해 동창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선배님들의 우려를 보면서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봉사를 결심했다”며 “더 많은 젊은 동문 참여라는 동창회 숙제를 어떻게든 풀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그에게도 동창회 활동의 아쉬운 점이었다.

정성일 회장은 “현 관악클럽 회장과 협조해 경력 개발, 스타트업 멘토링 등 젊은 동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모임을 만들려고 한다”며 “동창회 모임에서 좋



은 경험을 해야 참여 동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일 회장은 1986년 공대 항공공학과에 입학해 공기역학분야를 전공으로 석사를 마치고 텍사스 A&M 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과정, 매릴랜드 주에 있는 나사의 고다드(Goddard) 우주비행 센터에서 박사후 과정을 한 우주항공 전문가이지만 지금은 특허, 상표 분야 전문가로 KORUS Patent, LLC라는 자신의 로펌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정성일 회장은 “박사후 과정을 마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인공위성 열제어 관련해 2년간 근무하고 다시 미국에 와서 일리노이 공대(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했다”며 “특허법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그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로스쿨 과정 중 한국의 유명 로펌인 김 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기도 했다. 특허 변호사로 일하면서는 다양한 한국고객을 대리하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지금까지 수백건의 미국특허 및 상표를 등록시킨 바 있다.

정성일 회장은 “동창회 활성화는 시카고 뿐 아니라 전 미주 동문회가 안고 있는 숙제만큼 다채롭다면 다채로울 수 있는 제 경험이 동창회의 숙제를 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동문들 가족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 “젊은 후배들 다양한 동호회 활동 적극 지원할 것”

남욱현 워싱턴DC 지부 회장 (경영대 경영학과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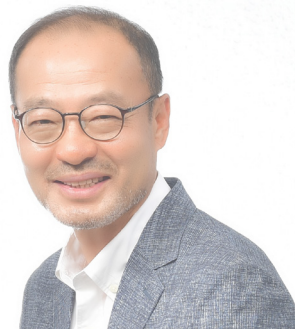
“재미있는 이벤트로 모임은 즐겁게  
선배들의 지원 통해 교류 활성화”

남욱현(경영대 84) 워싱턴DC 지부 회장(사진)은 사람들 만나 어울려 노는 것을 참 좋아한다. 2003년 연말 동문회에 처음 나갔는데, 당시 30·40대 동문들 참석이 거의 없는 것을 보고 80년대 학번 위주로 동문들을 규합해 2004년 아크로 모임을 결성하고 동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워싱턴DC 지부는 미주 각 지역 서울대 동창회 중에서 소모임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이다. 골프는 물론 테

니스, 바둑, 하이킹, 당구, 영화감상, 북클럽 등 많은 동문들이 자신의 취미에 맞는 동호회에 참석해 친목을 다지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즐기고 있다.

남욱현 회장은 “골프를 늦게 시작했는데 동문 선후배 고수들이 많이 도와줘서 요즘 골프 재미에 푹 빠져있다”며 “테니스, 바둑 등 다른 동호회도 배우겠다고 찾아오기만 하면 언제든 열심히 가르쳐줄 동문 고수들이 포진해있는 만큼 젊은 후배들이 마음에 맞는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창회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창회의 좋은 점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후배들이 교류하면서 실질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동창회장으로서 선후배간 교류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밝힌 선후배 교류라 함은 선배들이 자원해서 후배들을 초청해 소모임이나 파티를 열거나 후배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것을 말한다. 선배들의 배품과 지원이 있으면 젊은 후배들은 존경심과 더불어 선배들을 따르게 된다는 뜻일 것이다.

그는 또 설날 떡국 모임, 춘계 골프대회, 봄 피크닉, 가을 피크닉, 추계 골프대회, 연말 파티 등 이왕 하는 동창회 정기행사에 재미있는 이벤트들을 더해 즐겁고 재미있는 동창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남욱현 회장은 1998년 동성화학 아메리카 주재원으로 미국에 와 정착했으며 현재는 모기지 렌더 페어웨이 애셋(Fairway Asset Corporation)을 운영하며 동부와 중남부 및 서부 17개 주에 걸쳐 서비스를 하고 있다.

## “자신만의 역경 헤쳐온 후배들과 함께 해 자랑스러워”

박성호 샌디에고 지부 회장 (치대 80)



샌디에고 지부 신입 회장을 맡은 박성호(치대 80, 사진) 동문은 올해 수필집을 출간하고 내년엔 시집, 내후년에는 단편소설집을 내려고 준비중인 문인이다. 샌디에고 동문회에서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다른 동문 2명과 함께 1년에 두 편씩 번갈아가며 동문 단톡방에 글을 올려왔다.

대학 1학년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 2010년 미주 한국일보 공모에서 시가 당선됐고 2012년엔 소설로 입선했다. 오래전 같이 글을 쓰던 문우들은 지금은 부산에서 기성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 그에게 지부 회장으로서는 자신을 소개해달라는 글을 부탁했는데 지난 연말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급히 한국에 들

어가 장례식을 치르고 치과의사로서 원래 업무에 밀린 글까지 쓰느라 정신이 없다며 대신 얼마전 샌디에고 동문 카톡방에 올렸던 글을 보내왔다. 그가 보내온 글이다.

우리 가족은 2003년 내가 43세 유학생 신분으로 아이들은 5학년, 3학년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왔다. 한국을 떠나기 전 날 부산 서면 시대에 나가 기념 즉석사진도 찍고 자지결 찍었다. 늙은 나이에 버벅이는

# “소모임 활성화 통해 더 많은 동문 참여 이끌 것”

**이정관 워싱턴주 지부 회장 (농대 농공학과 83)**

지난 2년 총무로, 내친 김에 회장까지  
“적어도 한달에 한번 취미모임 만들 것”



도가 나 대우 건설이 소유하고 있던 남산 건설로 옮겨야 했어요.”

국가 부도 위기의 대한민국에서는 해외 이민이 살길로 떠올랐고 어느 일요일 집에서 쉬던 그의 눈에 신문 한 권에 난 캐나다 이민설명회가 눈에 띄었다. 호기심에 잠깐만 듣고 오자 했던 것이 캐나다 이민으로 이어졌고 그는 달하우지(Dalhousie) 대학에서 기계공학 석사학위를 받고 노바 매그네틱스 버그만(Nova Magnetics Burgmann),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있는 이글 버그만을 거

쳐 2012년 시애틀에 있는 매그나드라이브(MagnaDrive)로 옮겨 현재는 최고 운영책임자겸 최고기술책임자(COO/CTO)로 일하고 있다.

워싱턴주 지부에서 총무로 17년 그리고 회장으로 지난 2년간 봉사한 임현민 동문(공대 84)과는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이정관 회장은 “지난 2년동안 총무를 해서 잠깐 쉬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한번은 해야할 것 같아서 내친김에 회장으로 봉사하기로 했다”며 “1년에 3번 있는 메인 큰 행사 외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모여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바빠 살다 보면 동창회 모임에 참가하는것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취미생활을 모임으로 하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우선 골프모임을 계획했다”며 “소모임 활성화가 동창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른 소모임도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참을 웃었다. 지부 신입 회장 소개를 위해 이정관(농대 83) 워싱턴주 지부 회장에 개인 프로필을 요청했는데 보내온 글에서 처음 눈길을 끈 것이 “데이트하다 과로로 죽을 것 같아 직장을 옮겼다”는 내용이었다.

대학 졸업후 인천에 있는 한화기계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몇 달후 회사가 갑작스레 창원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안양에 사는 지금의 부인을 만나기 위해 주말마다 창원에서 안양으로 몇 시간 버스를 타고 가 데이트를 하고 일요일 저녁 기차를 타고 다시 창원으로 내려가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이리다 과로사할 것 같아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로 회사를 옮겼다는 얘기였다. 덕분에 그는 무난하게 데이트를 진

행하고 1991년 부인과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정관 회장은 부부가 동문으로 부인 최현주 동문은 농가정과(87)와 건축학과(89)를 나왔다.

그 다음 소개글을 읽으면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회사가 망하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내던졌던 1997년 IMF 외환 위기의 대한민국이 떠올라 한동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다.

“IMF로 회사는 난리가 나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처음 깨진 게 그때였어요. 연구소의 많은 선배들이 은행에서 투자 지원을 받아 창업을 했는데 퇴근후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회사 일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집사람이 다니던 대우 건설도 부

# “즐거움과 유익함으로 동문회 참석을 최대한 높일 것”

**문성인 미네소타 지부 회장 (공대 공업화학 88)**

부인 박현아 동문은 미주동창회 감사로 봉사



문성인 미네소타 지부 회장과 부인 박현아 동문.

즐거움과 유익함. 문성인(공대 88) 미네소타 지부 회장이 동창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화두로 삼고 있는 두가지다.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최대한 동문회 참석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들 바빠기 때문에 참석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들을 제공해 동문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에 유익함이 더해지면 참여 동문들도 늘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성인 회장은 “20년 전 미네소타에 처음 왔을 때는 저도 맞벌이를 하며 아

이를 키우고 새로운 직장과 생활환경에 적응하느라 동문회에 참여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며 “우연한 기회에 한성고와 서울대 동문인 왕규현, 김권식 대선배님을 만나 교류하면서 동창회 활동에 참여하게 됐는데 간접 경험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다양성을 체험하는 매우 소중한 모임이 됐다”며 자신이 받은 것을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문성인 회장은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마치고 2001년 매사추세츠 애머

반도체 분야 인테그리스(Integris) 회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문성인 회장은 캠퍼스 커플로 부인 박현아(공대 공업화학 88) 동문은 전공을 바꿔 매사추세츠 애머스트 대학에서 파이낸스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뉴욕시립대학교 브록클린 캠퍼

스트 대학에서 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포스트닥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미네소타주에 있는

스에서 재무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또 황효숙 차기 회장을 도와 미주동창회 집행부에서 감사를 맡고 있다.

▼ 영어와 귀머거리 행세로 도서실이 끝나는 시간까지 구석에 처박혔고 롱아일랜드와 맨해튼을 오가는 어두운 지하철과 후미진 버스, 낯선 얼굴 사이로 달리는 기차를 번갈아 타고 새벽부터 자정까지 3년간 끔찍하게 같은 길을 오갔다.

다시 영주권에 발목이 잡혀 사막 한가운데 엘센트로 미국 치과에서 살을 태우는 더위의 3년을 버티며 헐떡거렸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사막 한가운데 있다.

꿈과 기회의 나라라고 표현되는 미국 생활은 거대한 야수처럼 가족을 집어 삼켰고 6년간 허리를 졸라매고 살았기에

가족들은 모두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아픔을 참아내며 말수가 줄고 얼굴이 어두워졌다.

작은 아이가 대학 원서를 준비하는 시기부터 아내는 2번의 대수술을 참아내야 했다. 첫째인 아들은 에모리와 콜럼비아 대학원을, 둘째 딸아이는 스미스와 콜럼비아 대학원을 마치고 둘 다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어렵פות이 미래의 거울을 목격한다. 나는 아이가 부모에게서 무엇을 보는지 늘 두려웠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 단톡방의 모든

후배들도 자신만의 역경을 헤쳐나왔으리라 믿고 있다. 그러기에 후배들과 함께 있음이 벅차고 자랑스럽다.

Clinical Mental Theraphist 인 딸네미가 얼마전 문자를 보내왔다. 문장이 서툰어도 양해바란다.

“아빠! 오늘 본 환자들 중에서 보고타 콜럼비아에서 편안한 삶을 살다 40대 미국으로 Student Visa로 가족을 데리고 온 Woman 과 상담이 있었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Architecture Masters 도 있는데 여기서는 영어가 부족해서 자존감도 무너지고 지금 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일을 하는 중에 H- Visa Application 준비

중 ...모든게 불안하고 가족의 미래가 자신의 어깨에 있는 느낌.

잠도 못자고, 힘들고, 자기 9살 딸과 보내는 시간도 점점 일/학교 생활 때문에 적어지고, 미안함 느낌만 커지고 ...

그래도 자신은 자기 보다 더 큰걸 해내고 싶다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담해주고 있어요. 본지 한 2달? 이 환자 볼때 마다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자랑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요. 늘 감사하고, 고마워요.”

“아빠는 잘 자라준 너희들에게 늘 감사한다.”

# 한인 과학계 · 지역사회 오랜 봉사 “다 서울대 덕분”

SNU포럼 16년 이끈 김재훈 동문, 종신 이사 골드 가입

“이런 영광과 성취는 서울대 덕분이죠. 개인적 노력도 중요했지만 비전과 미래를 키울 수 있었던 모교 덕분입니다. 한미 기술 협력에 대한 기여, 서울대 동창회에 대한 헌신 등이 모두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으려는 노력입니다. 저희 서울대 동문들 모두 같은 생각일텐데 제가 앞장설테니 따라 오세요.”

시애틀 지역에 거주하며 항공제작사인 보잉사 보잉기술연구소에서 기술 임원을 맡고 있는 김재훈(공 72) 동문이 최근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골드가 됐다.

김재훈 동문은 미주동창회는 물론 한국 동창회에도 많이 잘 알려진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의 봉사와 헌신이 뒤로 숨으려는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널리 알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16년 넘게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사랑방, 지식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SNU포럼의 좌장을 맡고 있다. 그냥 주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로 연간 계획부터 강연자 섭외, 줌미팅 셋업까지 ‘SNU포럼=김재훈’으로 각인돼 있다.

이 포럼은 원래 시애틀의 로컬 포럼으로 10여 년간 운영돼다가 팬데믹과 더불어 전국 행사가 됐다. 연간 10회의 줌포럼이 진행되고 이를 통해 미국 곳곳의 서울대 동문들이 화면을 통해 고품질의 강의를 듣고 있다.

덕분에 에피소드도 많다. “요즘도 업무와 관련해 세계 곳곳의 학회와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네트워킹을 하는 목적이 강사 섭외가 있다 보니, ‘갑자기 접근하는 모습’으로 보일 터인데...서울대 동문들에게 필요한 강연인지부터 눈여겨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의 삶 속에 이렇게 봉사가 생활화돼 있다 보니 그의 본업인 기술 연구에 소홀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될 정도다. 하지만 그는 이미 1세대에게는 롤모델로 2세대에게는 멘토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군복무 한 후 세계 최고의 기업에 한국인으로서는 기술분야 최고위직인 기술임원으로 오른데다 한미간의 협력 증진에 남다른 공헌을 했다. 통상적인 이공계 박사들이 업무에 매달려 한인 사회 봉사 등에 나설 겨를이 없지만 김 동문은 전세계를 누비는 바쁜 일정에서도 한



김재훈 동문이 부인 김명호 여사와 포즈를 잡았다.

## 보잉사 최고위 기술 임원으로 세계 누벼 전 지부 참가하는 온라인 미팅 개최 제안

인 차세대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 동문의 보잉사내 직책은 기술임원 연구위원인 Executive/Senior Technical Fellow(STF)이다. 보잉에서 연구 분야로는 최고 직급이고 보잉에서 근무하는 수만명의 과학자들이 평생 꿈꾸는 자리라고 한다. 이보다 높은 직급인 부사장과 사장 등은 과학자 타이틀이 아니라 경영자로 직능(Job Code)을 바꿔야 한다.

현재 대략 20여만 명에 달하는 보잉 전체 임직원 가운데 김 동문과 같은 STF는 10여 개의 항공 기술분야를 갖고 있는 3개 회사에서 분야당 각 2명씩 60여 명에 불과한데 대부분 항공기 제작 분야에 집중돼 있다. 김 동문처럼 차세대 항공 우주산업의 핵심 기술인 통신과 네트워킹 분야의 STF는 보잉기술연구소에서 김 동문을 포함해 2명 뿐이다.

항공 산업의 지상 통신은 물론, 무선 통신, 위성통신, 군용통신, 항공 무선 인

터넷 등 통신과 네트워킹과 관련돼 모든 기술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김 동문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룩했다. 현재까지 25개 이상의 보잉 연구 기술상을 수상하고, 100여 편의 과학 기술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워싱턴 주립(UW) 전기공학 대학원 겸임교수로도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KSEA는 버지니아에 본부가 있는 한인 과학기술 단체로 단순한 친목단체와 달리 한미간의 기술 교류를 주도하며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해 오고 있다.

각종 장학금과 수학과학 경시대회를 통해 한인 1.5~2세대들에게 과학기술자의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인데 김 동문은 핵심 멤버다. 2010년에는 KSEA 전국 총회장을 맡아 시애틀에서 한국과



김재훈 동문이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표창장.

미 전역 한인 과학자들이 모두 모인 전국학술대회(UKC-2010)를 개최했다.

이외에도 2013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국학교 가운데 한 곳인 워싱턴주 시애틀-벨뷰 통합한국학교를 운영하는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인 차세대 인재 양성과 후세들의 나라 사랑 교육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서울대 동문으로도 지난 2008년 시애틀 지부장을 맡아 동문회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며 당시SNU포럼 창설을 주도했던 것이다. 혁신 기술 과학자인 김 동문은 미주 동창회에도 새로운 시도를 요구했다. 팬데믹을 통해 줌 등을 통한 온라인 회의가 생활화 됐는데 미주 동창회는 한발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는 “27개 지부와 집행부가 포함된 줌 온라인 회의는 최소한 계절에 한 번씩만 개최해도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아예 1년치 일정을 맞추면 50명은 꼭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 및 통신 전문가인 김재훈 동문다운 요구라고 볼 수 있다.

김 동문은 모교에서 전기공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1981년 유학길에 올라 1986년 게인스빌에 있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광통신소자 및 시스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켈텍에서 시니어 사이언티스트 및 태스크 매니저로 5년 일하고 보잉에 스카우트돼 1991년 시애틀로 이주했다.

부인인 김명호씨와 자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는 아들과 뇌과학자로 알츠하이머를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 후배 며느리가 있다.

2008년 대한민국 대통령상 등 여러 건의 수상 기록이 있다.

장병희 편집위원



김재훈 동문의 홈오피스 모습.



2023년 KSEA주최로 열린 UKC행사에서 김재훈 동문이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다.

# “남편과 합심해 아들 셋 모두 의사 만든 것 큰 보람”

골드 종신이사 가입한 김보연 동문(간호대 63)

김보연(간호대63) 동문이 최근 종신이사 골드에 이름을 올렸다.

김 동문의 부군 심화섭(약대61) 동문도 이미 골드 이사다.

“원래 그 당시 대세인 가정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미국 존슨대통령 따님이 간호학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간호학과로 바꿨습니다. 참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한 김보연 동문은 그

리나 미국에 와서 간호사를 하지 못했다. 당시 한국인이 간호사 라이선스를 받기 어려워서 김 동문의 라이선스는 첫번째나 두번째나를 따질 정도다. 김 동문의 기억으로 첫번째다.

부군 심화섭 동문의 약국이 무척 잘됐다. 지금은 은퇴한 지 10년도 넘었다.

부부는 3남1녀를 낳았다. 덕분에 간호사 라이선스는 장풍으로 들어갔다.

심 동문은 밖에서, 김 동문은 안에서 4

남매를 잘 키우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했다. 더욱이 3남 모두 메디칼 닥터다.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모두 방사선과 전문의로 넷째도 전문의다. 딸인 셋째는 화이저에서 마케팅 디렉터를 역임했다. 넷째 아들의 경우, 15세에 하버드에 입학했고 MD PhD가 됐다. 지금은 브라운 의대 교수가 됐다.

장병희 편집위원



부부 모두 골드 종신이사가 된 김보연 동문과 심화섭 동문.

# “올해 84세 됐지만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요”

종신이사 된 남가주 신경자 동문(사범대 60)

신경자(사범대 60·사진) 동문이 최근 종신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영어교육과를 나온 신경자 동문은 성동여중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다가 중매로 만난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다.

미국 이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부할 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문과를 했으니 미국에서는 이과를 해야겠다고 싶어서 생물학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현미경을 다뤄야 하는 생물학 전공 특성상 눈이 나쁜 신 동문에게는 여의치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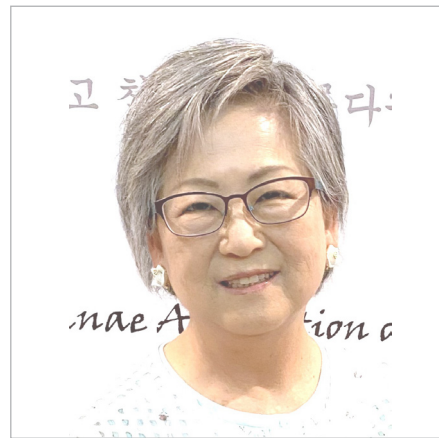
이후 남편의 사업을 도왔지만 학업에 뜻을 접지 못해서 결국 캘스테이트 롱

비치에서 조각을 공부했다. 2003년에 졸업했다. 지금은 세리토스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는 조각가 보다는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찍는 것이 취미였는데 이제 취미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며 잘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상배(홍용표)는 4년이 됐다. 동문회 활동은 어쩌다 보니 사범대 동문회 보다는 경기여고 동문회에서 더 일을 많이 했다. 그러다가 어려서 못했던 공부에 취미를 붙였다.

“사실 나이 먹어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



터넷이 발달하면서 매번 학교에 갈 필요는 없고 온라인 수업이 많아서 그 덕을 봤습니다.”

1941년 4월생이라 올해 84세가 되지만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것이 많다고 밝혔다.

“조각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갔던 캘스테이트 롱비치에서 컴퓨터를 더 많이 배웠다”면서 신 동문은 “지금도 컴퓨터를 많이 쓰는데 어디 가서 뭘 좀 더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왕이면 약기도 더 배우고 피아노는 조금 연주하지만 기타를 꼭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금 나이는 있지만 아직까지 걷는 것에 문제가 없으니 출사도 열심히 따라가고 컴퓨터로 보정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나를 매우 행복합니다.”

서울대 동문회나 사범대 동문회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종신이사도 됐으니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 손재옥 전 회장 부군 하형록 목사 별세



동부 대형 건축설계회사 팀 하스 회장  
심장마비 기적 간증으로 널리 알려져

호조 상황을 기대했으나 입원 49일만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

하형록 회장은 팀 하스를 설립하고 유명 주차장 설계 회사인 Walker Parking Consultant 대표를 지냈으며 미국 상원 인준을 거친 연방정부 건축 관련 최고의 결 및 자문기관인 국립건축과학원 종신이사, 전국 소수민족 단체 연합회, 아인슈타인 의료 네트워크, 국제 주차 연구소, 서재필기념재단, 미시오 신학교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런 활동을 통해 전국 소수민족 단체 연합(2016년 엘리스 아일랜드 명예 훈장), Ernst & Young(올해의 기업가상), ASCE 필라델피아(20-11년과 2015년 올해의 엔지니어상), 펜실베이니아 주 신규 이민자 환영 센터(2016년 아메

리칸 드림 실현 솔라스상), 2012년 텔라웨어 벨리 올해의 엔지니어상, 2011년 국제 주차 협회상 등 다수의 상과 표창을 받았다.

무엇보다 하형록 회장은 1991년 32세에 심실빈맥증으로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살아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보다 더 절박한 심장 이식 환자에게 심장을 양보한 후 놀라운 기적을 잇따라 체험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에’ 주시는 은혜, ‘페이버(favor)’임을 깨닫고, 자신이 체험한 기적과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두 번째 저서인 ‘페이버’에 담았다.

하형록 회장은 또 펜실베이니아주 블루

## \* 바로 잡습니다

▶동창회보 1월호에 실렸던 미네소타 지부 연말총회에 와인을 보내주신 분은 노명호 전 미주동창회장이 아니라 신용남 전 미주동창회장입니다.

▶동창회보 2024년 11월호에 실렸던 의대 18회 미주 동문들 모교에 125만불 기부 기사는 125만불이 아니라 12만불입니다.

필라델피아 동창회와 미주동창회장을 지낸 손재옥(생과대 77) 동문의 부군인 하형록 목사(사진)가 지난해 12월26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미 동부 대형 건축설계 회사인 팀 하스를 세우고 갈보리비전교회를 창립한 하형록 회장은 지난 11월 7일 심장마비로 중환자실에 입원 후 8일 기적적으로 소생해 세 번째 심장이식 수술 절차와 건강

벨에 있는 갈보리비전교회 창립 목사로 한인 교회들에서 강사로 활동했으며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간증했다.

하 회장의 딸 줄리아나는 “아버지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하려는 변함 없는 열정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간증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적극 찾았고, 믿음, 친절, 관대함, 환대, 비전, 정직, 사랑으로 수천 명에게 영감을 줬다”고 전했다.

# 국문학의 태두 도남 조윤제 선생의 아들 조복래·윤계자 동문 부부 아버지 기려 모교에 200만 달러 학술 기금 기부

한국 근대사 일제 치하에서 조선어 문학 연구로 민족문학의 발굴과 전승의 기반을 세웠던 도남 조윤제 서울대 교수를 기리며 미국의 그의 자손들이 200만 달러의 학술기금을 서울대에 일시불로 기부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조복래(문리대 사회학과 57) 윤계자(미대 응용미술과 61) 동문 부부가 그 주인공으로 그들의 기부 스토리를 소개한다. 조복래, 윤계자 동문 부부는 자신들의 사진이 실리는 것을 원치 않아 조 동문의 아버지 도남 조윤제 박사의 사진만 실었다.



충남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에 세워져 있는 도남 조윤제 기념비. 조윤제 선생은 민족사관에 입각해 국문학의 기틀을 닦은 국문학자로 일제강점기 황무지나 다른 없던 국문학 연구에 있어 개척자적 역할을 했다.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의 서울대 발전 미주재단(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으로 노스 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 거주하는 윤계자 미술대학 동문이 전화를 걸어왔다. 학교 때 절친했던 미대 동기가 남가주에 산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연락처를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윤계자 동문이 찾는 친구는 미대 61학번 동기 백훈씨. 백훈 동문은 서울대에 1백만 달러 기부 약정을 하고 '한 흥택-백훈 장학기금'을 설립해 서울대에 매년 10만달러씩 기부하고 있는 한 흥택 공대 동문(UCLA 명예교수)의 부인이다.

LA북쪽 해변 휴양도시 말리부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부부에게 연락이 갔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윤계자 동문과 남가주의 백훈 동문은 수십년만에 전화통화를 하며 더할 수 없는 반가움을 나누었다.

그로부터 석달후 노스캐롤라이나의 조복래, 윤계자 동문 부부는 서울대학교에 200만 달러를 일시불로 기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의 동문들이 이어가는 우정만큼이나 아름다운 기부이야기이다.

기부금은 조복래 동문의 아버지 조윤제 서울대 교수의 이름을 기리며 '도남 조윤제 학술 장학기금'으로 명명됐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은 극구 사양하며 아버지 조윤제 교수의 업적과 봉사를 서울대에 오래오래 기리고 싶다고 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가 '도남 조윤제 학술 장학기금'을 운영하면서 매

1924년 창립 경성제국대학 예과 1회생으로 입학  
조선어문학회 결성하고 한국 첫 국문학 잡지 발간  
서울대 학장으로 국문학 초석 다진 실천적 지식인

조복래 동문은 시티 코프 부회장까지 지내고 은퇴  
두 아들도 의대 교수·변호사로 아메리칸 드림 이뤄  
“아버지 뜻 이어 국문학 연구 발전에 도움되면 보람”

해 선정된 국문학 연구자에게 학술과 장학기금을 수여토록 하는 것이다.

## 대를 잇는 부자의 모교사랑

기부자 조복래 동문은 조윤제 교수의 셋째 막내아들이다.

“아버지께서는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 1회생으로 입학하셨습니다. 1950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장을 하셨고 1952년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60년 4.19 학생 데모에 이어서 전서울의 교수단 조직에 의장으로 취임하시고 학생들과 함께 반정부 데모에 참가하시다 1961년 군사혁명 당시 기소되어 4년형을 받고 8개월 반 만에 무죄석방 되셨습니다. 그후 조윤제 교수는 한국의 문학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며 학자

로서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청년 조윤제는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창립된 1924년 문과 1회생으로 지원 입학했다. 출세나 영달을 위한 학문보다는 당시 일제에서 전혀 학술적 연구가 없었던 민족문학을 발굴해 나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당시 조선왕 순종의 서거와 관련해 조선인들의 봉기가 준비되는 가운데 조윤제도 비밀단체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준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는 “학문을 통한 독립운동, 한민족 정신의 결정체인 한국 고문학연구가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역할”이라고 결심하고 학문적 스승이나 선배가 전무한 황무지 한국고문학 연구에서 고전 체계화를 이루어 가면서 조선어문학회를 결성하고 한국 최초의 국문학 잡지를 발간했다.

그는 향가에서 시조문학, 창곡, 가사 송영등 수많은 한국고전 문학의 장르를 발굴, 체계화 하고 1937년에는 '조선시 가사강' '한국시가의 연구' '교주 춘향전' '국문학사' 등을 펴내는 등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한국문학에 남긴 그의 공로에 정부는 1963년 '대한민국 학술원상' 을 수여했다. 도남 조윤제 교수는 1976년 4월 10일에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자신이 쓴 그의 묘비명은 '민족에 살고 민족에 죽는다'이다.

## 이민자의 성공을 다시 모교로

조윤제 교수는 자녀들도 서울대 동문들로 훌륭하게 키워냈다.

조교수의 아들 조복래 동문은 1965년, 그리고 윤계자 동문은 1966년 미국으로 와 1969년 결혼을 했다. 이후 뉴욕에서 거주하며 미국 굴지의 금융기관인 시티 코프(Citi Corp)에서 부회장(vice president)까지 역임한 후 1999년 은퇴했다. 한인들도 많지 않던 시대에 미국으로 와 서울대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과 정직함으로 미국 경제생활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아가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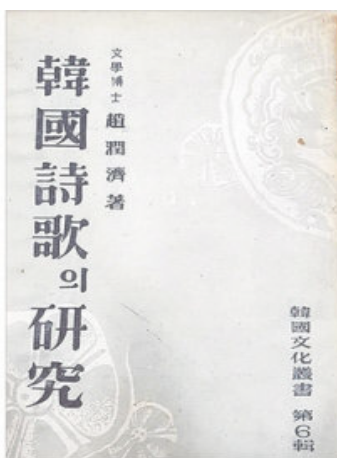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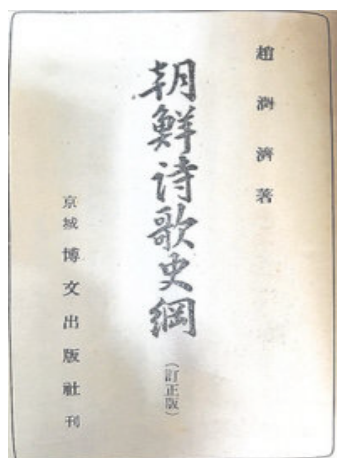
조복래, 윤계자 동문의 두 아들은 미국내 우수한 학자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첫째 아들 조서현(Clifford S.)씨는 미시간대학 의학교수, 둘째 아들 조도현(Gregory D.)씨는 뉴욕시 변호사이다.

조복래 동문은 “두 아들이 이번 기부를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뜻대로 사용하라고 격려해 주었다”며 “저희보다는 아버지 조윤제 교수의 업적이 드러나고 그분을 기리기 위해 이번 기부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장실과 국문학부는 조복래, 윤계자 동문의 기부에 큰 감사를 표시하며 '도남 조윤제 학술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그에 따른 국문학 발전의 성과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 동문들의 서울대학교 기부절차 문의는 '서울대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전화 (213) 435-1974, 이메일 america@snu.ac.kr 이다.

글=김인종(농대 74 . 미주동창회 고문)



도남 조윤제는 생전에 우리나라 국문학사에 획을 그은 수많은 저서를 남겼다. 왼쪽부터 '조선시가사강' '교주 춘향전' '한국시가의 연구' '국문학사'.





# 모두가 함께한 2024년, 서울대의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1월

SNU  
Networking  
In U.S.



TOGETHER IN 2024, WE CREATE TOMORROW

지난 1년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은 동문, 교수, 교직원, 학부모, 학생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인재 양성, 연구 지원까지 모든 발걸음은 여러분과 함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서울대 구성원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함께 만드는 서울대, 앞으로도 여러분과 더 큰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월

기부자 초청  
장학금 수여식



3월

천원의 식사  
아너 월 제막식



4월

SNU  
FUTURE CLUB  
출범식



5월

명예교수 간담회  
모금홍보



6월

문화예술원과함께 한  
사무엘 윤 음악회



7월

기부자 초청 특강  
행복한 삶의 조건



8월

천원의 식사  
후기 학위 수여식  
이벤트



9월

천원의 식사  
1주년 성과보고회



10월

미주 동문 홈커밍데이  
기부자 오찬 행사



11월

SNU  
MUSIC  
CONCERT



12월

12월엔 천원의  
식사에 참여해주세요



# “서울대 연구 성과·명성 높이는데 도움 되고 싶어”



강효석(경영학과 05) 서울대 경영대 부교수

12년 미국 생활 정리하고 모교로 부임하며

추운 겨울 어느 날, 지금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사회과학대학 16동 건물에서 얼어붙은 손을 간신히 녹이며 논술 시험을 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저는 2005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영학 석사 과정을 거쳐 미국 UC버클리 박사 유학 길에 올랐습니다. 학위를 마친 후에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교수로 근무한 뒤 2024년 가을에 모교 경영대학에 부임하였습니다. 햇수로 12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며,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를 통해 그간의 여정과 소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과의 첫 인연을 Berkeley Economics Semester Abroad Program(BESAP)을 통해 맺게 되었습니다. 3학년 재학 중 경제학부에서 모집한 해당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UC버클리에서 한 학기를 보내며 경제학과 수업을 듣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버클리 교수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박사 과정 진학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경영학 석사 과정을 거치며 박사 유학을 준비하였고, 제 학문적 관심사에 따라 기술 혁신 전략과 정책 연구에 특화된 UC 버클리 하스경영대학원의 Business and Public Policy 프로그램으로 진학하였습니다.

유학 첫 해는 그야말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주어진 텍스트와 모델을 습득하고 시험을 잘 치면 되었고, 이걸 버클리 교환 학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박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논문을 읽고 비판적으로 습득하는 동시에 새로운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어둠 속을 헤매는 불안한 탐색의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첫 학기의 세미나 수업은 매주 세 시간씩 진행되었는데, 교수님과 동기 세 명이 무릎이 맞닿을 정도로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논문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주어진 논문을 모두 읽고 준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맥락에 맞게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제가 조용히 듣기만 하자, 교수님께서는 점차 저를 지목해 질문하시기 시작했고, 미국인 동기들 또한 제가 언어 장벽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자신들의 발표 부담이 커지다 보니 저에게 수업 중 더 적극적으로 발언해 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년차가 되었을 때, 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 앞에서 처음으로 저의 논문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준비한 후에도, 발표 며칠 전부터 세미나실을 예약해 하루 종일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에는 며칠간 앓아누울 정도로 긴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꾸준히 노력한 결과 토론과 발표 모두 익숙해졌는데, 졸업 즈음에는 별다른 준비 없이도 학회 발표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메일 오타 하나까지 지적하던 간간한 지도교수님과의 미팅은 끝까지 어렵고 긴장되었지만, 그 세심함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은 학부 시절부터 관심이 있던 시장 경쟁과 기술 혁신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



서울대 경영대학이 위치한 건물.

제한 규칙 제정에 기여하여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감사 서신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연구자로서 학문적 성과가 실제 기업 경영과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체감하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박사 졸업 후에는 USC 마셜경영대학

나무와 단풍 같은 것들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모교 교수 초빙 공고를 접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미국의 좋은 연구 및 생활 환경과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는 모교 사이에서 밤낮으로 깊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 숙고 끝에, 제가 이곳에서 배우고 연구한 것을 모교의 후배들과 나누는 것이 큰 보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교수님들의 환대와 지원 덕분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주 동문들께서 공감하시듯,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USC 마셜경영대학에서만 저를 포함해 세 명의 한국인 교수가 서울대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USC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얼마나 좋은 대우를 해주기에 좋은 조건의 카운터 오퍼를 마다하고 떠나는지 의아해했지만, 사실 급여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대학교에서의 연구비는 1/10로 감소했으며, 강의 시수는 두 배로 늘었습니다(찾아보니 서울대학교의 등록금도 USC의 1/10 정도입니다).

저는 모교와 후배들에 대한 애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귀국했지만,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교수님을 초빙하고 그 연구를 지원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의 연구 성과와 명성을 높이는 데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해외 학자나 인사 담당자들에게 서울대학교가 단순히 <오징어 게임> 조상우의 모교나 <스카이 캐슬> 예서의 드림 스쿨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성과와 뛰어난 졸업생들이 먼저 떠오르는 학교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연구에 바쁘다는 핑계로 미주 동창회 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미국 생활 동안 직간접적으로 많은 동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미주 동창회에서 모교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애정 어린 질책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USC 마셜경영대 한국인 교수 3명 모교로 돌아와 연구비 1/10로 줄고 강의 시간은 2배 늘어났지만 미국서 배우고 연구한 것, 모교 후배들과 나누고

니다. 매주 학과 교수님들과 아이디어를 논의하며 수많은 후보 중 처음으로 합격점을 받은 주제였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50여 년간의 가격 담합 적발 사례를 담은 문서 수천 건을 읽고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이를 기업의 특허 등록 및 연구개발비 지출 데이터와 연결하여 분석했습니다. 담합의 시작과 종료에 따른 기업의 혁신 활동 변화를 분석하고, 비담합 기업이 “우산 효과”로 얻는 반사 이익이나 그 기저의 메커니즘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센서스(인구조사) 데이터 이용을 위한 신원 조사를 위해 FBI 조사관이 연구실을 방문하고 저와 동료들을 인터뷰했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부 세미나에 초청받아 이 연구를 발표하며 정책 실무자와 연구자들에게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논문으로 미국 연방 정부의 영업금지약정

에 조교수로 합류하였습니다. 연구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학문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 성장에는 가족도 함께했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일상을 정리하고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아내는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 USC 로스쿨을 졸업한 후, 캘리포니아 변호사로 보람차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 아이가 태어나 가족도 둘에서 넷이 되었습니다.

돌아해보면 캘리포니아에서의 12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온화한 날씨와 친절한 사람들 속에서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바쁘고 연구 실적 압박에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즐겁기도 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서의 삶이 점점 끝이 있는 여행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엉뚱한 말일수도 있겠지만 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볼 때 LA의 야자수보다는 한국의 소



김종섭 서울대총동창회장이 건배사를 하고 있다.



최광휘 동문 부부가 탱고를 추고 있다.



박혜옥 동문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 17대 미주동창회 ‘즐거운 송년회’ ... 50여명 참석

## 김종섭 모교 총동창회장도 자리 빛내 신응남 전 회장은 뉴욕서 와인 선물

17대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가 지난해 12월27일 LA 용수산 한식당에서 송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집행부 임원, 역대 회장을 지낸 고문 등과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는 해를 아쉬워 하며 17대 미주동창회의 새로운 2025년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했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은 환영의 말씀

에서 “지난 한해 웨스턴 캐리비언 크루즈에서 제33차 평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에서 열린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석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면서 “아울러 미서부 종단과 동서 대륙 횡단을 통해서 여러 지부를 방문하면서 동창회 각 지부의 현실과 기대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추진 중인 데이터 베이스가 완성되면 미

주동창회와 각 지부와간의 친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진다”며 “앞으로 남은 6개월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 임원들과 고문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미주동창회 고문인 남윤호 중앙일보 대표, 성주경 동문 부부, 박종수 동문 부부, 하기환 동문, 김병연 동문 부부, 이채진-강미자 동문 부부 등이 참석해 1년 동안 수고한 미주동창회 집행부를 치하하고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17대 임기를 마치기를 기원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서 임낙균 고문이

1000달러, 뉴욕 거주 신응남 전 미주동창회장이 와인세트를, 하기환 고문이 50달러 상당의 고급 와인 10병을 지원했다. 또한 박종수 종신이사도 미주동창회를 위한 일반 기부금 5000달러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노래자랑, 라인댄스, 각종 퀴즈 등 참석자들이 모두 참가하는 이벤트를 비롯해 박혜옥 동문이 오랜만에 기타를 연주해 갈채를 받았다. 또한 최광휘 동문 부부가 무대에 올라 10년만에 환상적인 탱고를 취 참석자들의 어마어마한 환호를 받기도 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임항균 동문의 진행으로 여성 동문 및 배우자들이 무대에 나와 라인댄스를 추고 있다.



미주총동창회 송년행사 공식 기념사진. 일부 동문들이 타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찍 자리를 떠났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 제19대 회장 후보 추천 공고

(임기 2027. 7.1 ~ 2029.6.30)

서울대 미주 동창회가 제 19대 미주 동창회를 이끌 차차기 회장(임기 2027.7.1 ~ 2029.6.30)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를 2025년 2월 28일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전 회장, 현 회장, 차기 회장 지역은 제외합니다.

### 제 19대 회장 선거 일정

1. 2025년 2월 28일 차차기 회장 추천서 접수
2. 인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후보는 동창회보 등을 통해 출마 공약 발표
3. 2025년 6월 제 34차 전국 평의원 회의(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차차기 회장 선출

### 근거규정

1.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위원회 규정
2. 차차기 회장 후보는 서울대 미주 지역 동창회장을 역임했거나 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 가운데 책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 인선위원

- 위원장 노명호**  
(626) 991-4457 steve.ro@lee-ro.com
- 이상강 17대 회장**  
(918) 616-3386 mpcsglee@gmail.com
- 황효숙 18대 회장**  
(651) 308-0976 sook@nano-dyne.com

### 인선위원

- 조규승(시카고)  
김정필(뉴욕)  
최진민(뉴잉글랜드)  
정세근(워싱턴DC)



신년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이 환히 웃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맨 왼쪽 사진에는 오세경 동문이 보이고 가운데 사진에는 고종성 동문과 관악회장을 맡고 있는 정해원 동문이 보인다. 김병국, 김문소, 박영철 동무(맨 오른쪽 사진)도 반갑게 웃고 있다.

## “올해도 으싸 ~ 재미있고 유익한 동창회 만들자”

계속 내리고 있는 눈 속에 묻힌 보스톤 근교에 위치한 벌링톤(Burlington)의 세븐 스프링스 클럽하우스(Seven Springs Clubhouse)에서 지난 1월11일 토요일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최진민, 공대 71)의 신년 교례회가 열렸다.

이날 신년 교례회는 50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완(공대 84) 총무가 진행을 맡아 환영사, 교가 제창으로 시작됐다. 동영상으로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의 역사와 현재를 보여주고 새로 참석한 동문들을 소개한 데 이어 노동완 총무가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1부 순서를 마쳤다.

점심 식사는 한식 뷔페로 불고기, 잡채 등을 즐겼고 후식 별미로 인절미도 준비했다. 동문들은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동안의 안부를 묻고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

점심 식사후 2부 순서로 상품권과 감사품 전달식이 있었다. 특히 장학회를 새로이 시작할 수 있게 한 (고)이재신 동문의 부인과 큰딸 수잔을 초대하여 감사품을 전달하였다. 두 분이 7만 8000달러를 기부하고 그 동안 축적된 동창회 기금 2만8000달러를 합쳐 1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장학 기금의 근간이 마련되었다.

김병국 동문의 피바디 박물관(PEM/Peabody Essex Museum) 소개도 있었다. 피바디 박물관은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박물관이자 미국에

### 50여 동문·가족, 신년 모임 참석해 즐거운 시간 고 이재신 동문 가족 기부, 장학기금 10만불 조성

선 처음으로 한국 유물을 수집한 곳으로 유길준 유품을 비롯해 조선시대 복식, 회화, 공예, 현대 작품까지 다채로운 한국 유물과 미술품을 만나 보고 그 제작과 수집 배경을 알아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김병국 동문은 5월15일 피바디 박물관(PEM) 한국관 재개관에 많은 동문들이 관심을 갖고 후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뉴잉글랜드 동창회와 산하 모임인 관악회, 산우회 그리고 장학위원회의 2024 회고 및 2025신년 계획 발표가 계속 진행되었다. 2024년 뉴잉글랜드 지부 주요 행사로는 신년회, 포럼, 정기총회를 겸한 야유회 및 장학금 수여식, 산우회 산행, 관악회 야유회가 있었다.

지난 6월 15일의 야유회 및 장학금 수여식에는 관악회원, 서울대병원 교수, 장학생 등 약 70여명이 참석하였다. 2025년에도 6월에 정기 총회와 야유회를 겸한 장학금 수여식을 계획하고 있다. 2024년 산우회 산행은 1월1일 신년 맞이 산행과 단체 산행 3회가 있었다. 2025년에는 월 1회 정기 트레킹을 계획하고 있다.

관악회 카톡방에는 젊은 동문 280여 명이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매년 두 번의 만남을 가지고 있다. 장학위원회는

이헌구 위원이 존스 홉킨스 대학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됨에 따라 50대의 송영철 동문(농대), 40대의 오성환 동문(자연대00), 30대의 윤서우 동문(사회대 11), 세 분을 새로이 장학위원으로 모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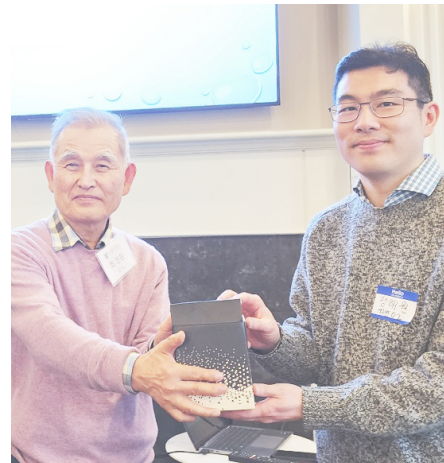
장학금은 2022년 35명 지원에 9명 선정, 2023년 57명 지원에 11명, 2024년 42명이 지원해 10명에게 지급되었다. 많은 우수한 지원자가 있었지만 장학금 규모의 한계로 10명 정도로 지급하게 되었다. 장학금 후원 사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동문 발전을 통한 장학금 후원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

김광수(자연대 73) 장학위원장은 “장

학금 사업을 위해서라도 명분과 실리, 재미를 갖춰 관악회원들이 동창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장학 후원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 동문들이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나래(음대08) 동문이 영상을 통해 신년 축하노래를 들려줬고 동문들은 2025년 새해에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아쉬운 만남을 뒤로 했다.

피바디 박물관 문의는 김병국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회장(byungkim@gmail.com), 장학사업 문의는 김광수 위원(kskim@mclean.harvard.edu), 관악회 문의는 정해원 회장(emilo83@gmail.com), 동창회와 산우회 문의는 최진민 회장(jinchoi52@gmail.com)에게 하면 된다. 글= 백문성(문리대65)



최진민 회장(왼쪽)과 정해원 관악회장.



최연장자로 참여한 김정환 동문(공대 52).



신년모임에 참석한 뉴잉글랜드 지부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금난새 지휘자가 연주될 곡을 설명하고 있다.

700석이 모두 매진돼 좌석이 꽉 차 있는 모습.

## 금난새 지휘 신년음악회로 ‘품격 있는’ 새해 맞이

동문 · 가족 700명 공연장 짝 매워  
올해로 2회째, 총동창회 기획 준비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임춘택)가 주최한 2005년 신년음악회가 지난 1월 5일 UC어바인 대학 구내 바클레이 시어터(BARCLAY THEATRE)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음악회의 테마는 챔버 오케스트라와 국악의 만남이었다. 이날 행사는 700석 전석 매진에 남가주 일대 서울대 동문들이 총 출동하는 등 신년 초부터 동문들의 단합이 돋보이는 행사였다.

이 행사를 지휘한 금난새 동문은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치있는 해설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어 왔는데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굳이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재미있고 즐겁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설명이 쉽고 유머러스해 관객들의 호응이 컸다. 특히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라는 금난새

동문의 취지에 맞는 훌륭한 음악회였다

는 평가다. 김상찬 전 남가주 동창회장은 “지난 해 음악회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었다”면서 “우리 전통음악과 피아노 연주가 펼쳐지는 동안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새해를 맞아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참석한 동문들도 너무 좋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연에는 헨델의 ‘시바 여왕의 도착’을 비롯해, 비발디 사계중 겨울, 봄, 여름이 연주됐고 ‘불가리안 웨딩댄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K136’ 중 1악장, 영화음악 ‘LA Trio’, 아리랑, 비발디의 ‘기타 협주곡 D장조’, 보시의 ‘골도니아니 간주곡’이 연주됐다.

금난새 동문은 지난 2015년부터 성남

시립예술단의 총감독이자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포스텍의 특임교수로 임명되어 클래식 콘서트와 세미나, 마스터 크래스, 특강 등을 통해 포스텍의 인문예술적 환경제고

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이고 내년부터는 LA쪽으로 이동해 비슷한 포맷으로 음악회를 계속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희 편집위원



지난 1월5일 열린 신년 음악회를 마치고 남가주 지부 동문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 앞줄 왼쪽에 앉은 사람이 김중섭 서울대 총동창회장, 왼쪽에는 서치원 동문, 한 사람 건너 김상찬 동문이다. 뒷줄 왼쪽부터 강호석 동문, 임춘택 남가주 지부장, 박용필 동문, 한 사람 건너 노명호 전 미주 동창회장, 금난새 동문, 한사람 건너 김유은 동문, 성주경 동문이다.

## 문리대 신년모임에 교양 프로그램 빠질 수 없죠

작가 이상의 삶 강연 · 클래식 소음악회도  
2년 봉사 김종하 회장, 1년 더 회장 연임

문리대 남가주 동창회(회장 김종하)의 2025년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 행사가 지난 1월18일 토요일 LA의 용수산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오찬을 겸한 신년하례식 행사에는 1955년 입학 선배님들에서부터 1992년 입학 후배에 이르기까지 50여 명의 동문

과 가족들이 참가해 오랜만에 반갑게 만나 인사하며 새해 덕담을 나누고 즐겁게 교류했다.

문리대 동창회는 동승동 문리대 출신 동문들과 관악 캠퍼스의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출신 동문들이 세대를 넘어 화기애애하고 끈끈한 동문간 우애와 사랑을

과시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문리대 남가주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하(영어영문 85) 동문이 한 해 더 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이어 오찬 후 진행된 특별 순서에서는 먼저 초청 강사로 김지영 동문(사대 69)이 마이크를 잡고 ‘금홍이와 연심이’ 라는 주제 아래 작가 이상의 삶과 뒷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 문리대 동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열린 소음악회에서는 초

청 음악가로 피아니스트 안정희씨와 소프라노 이영주씨가 나와 ▲쇼팽의 ‘녹턴 2번’ ▲‘넬라 판타지아’ ▲푸치니 오페라 ‘진니 스키키’ 중 아리아 ‘O mio babbino caro’ ▲가곡 ‘꽃구름 속에’ ▲노사연의 ‘바람’, 그리고 앵콜 곡으로 ▲ ‘타임 투 세이 굿바이(Time to Say Goodbye)’를 선사하며 멋진 공연을 펼쳐 큰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문리대 남가주 동창회 연락처 (323)620-6712 김종하 회장.



1월18일 LA 용수산 식당에서 열린 문리대 남가주 동창회 2025년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에서 참석 동문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인도 히말라야의 산간마을 다람살라 전경(왼쪽사진). 무슬림 유적지인 승전기념탑 꾸뎀 미나르와 모스크 유적들.



## 하기환 동문(공대 66)의 인도 여행기

# 에베레스트로 떠났는데 어쩌다 인도 문화 탐방

정말 내일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간단한 사실을, 이번 여행에서 제대로 실감했다. 지난해 10월, LA스키협회 회원이 주축이 된 히말라야 트레킹팀이 두 번째로 만들어졌다. 2023년 제 1차로 우리는 안나푸르나 등반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를 반환점으로 돌아서며, 다음 해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EBC)를 찾기로 했던 것. 약속대로 우리 4명으로 짜인 팀은 히말라야로 떠났다. 하지만, 여행은 에베레스트가 아닌 인도이야기로만 가득하게됐다.

### 에베레스트를 향해 GO!

지난 10월 3일, 한국 인천을 떠나 6시간 정도 비행 후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다음날 4일 아침 일찍 카트만두 국내선 공항에 도착했다. 예약된 헬리콥터만 타면 될 일이다. 시간에 쫓기는 우리는 헬리콥터를 빌려 루클라공항(Lukla Airport)을 거쳐,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EBC)로 가기로 했다.

예전 한국의 시골역 대합실 닮은 카트만두 국내선 공항은 몹시 붐볐다. 많은 트레커들이 모였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에베레스트로 비행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들떠 있었다. 그런데 항공사에서 연락이 없다. 한 시간 두 시간, 무려 5시간이나 출발을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없다. 그 대신 우리와 계약한 네팔 여행사에서 메일이 왔다.

“안녕하세요 Ron, 미스터 하, 및 모든 팀원들, 네팔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팔의 최근 소식을 업데이트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때 아닌 집중 호우와 홍수로 인해 네팔 전역의 많은 인프라가 파괴되어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중략), 10월 1일부터 민간항공은 EBC(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 구조 헬리콥터만 착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규정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헬리콥터는 정부 구조를 위해 대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중략), EBC에 헬기를 착륙시키지 못해 매우 유감

입니다.”

급히 구글 검색을 해 보니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간다. 네팔에서는 22년 만에 내린 폭우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어제만 하더라도 홍수와 산사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다는 뉴스. 지난달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카트만두에는 하루 최대 322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카트만두공항 관측소는 이번 강우량이 2002년 이후 최고라고 밝혔다. 네팔 정부는 전날 저녁 이번 수해에서 4200여명이 구조됐지만, 전국에서 총 209명이 사망했고 29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이럴 수

### LA스키협회 회원 4명 원정팀 꾸려

### 에베레스트 등반 위해 히말라야로

### 네팔 폭우에 아쉬움 속 인도로 발길

가! 이러니 이용 가능한 헬리콥터는 모두 수재민 구조를 위해 징발된 것이다. 그리고 위험한 루클라공항도 기상 관계로 경비행기조차 이·착륙을 못한다고 했다.

에베레스트로 갈 수만 있다면 5시간이 아니라 종일이라도 대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심각했고 엄중했다. 희망이 없었다. 이럴 땐 포기가 빠를수록 좋다. EBC 일정을 취소하고 다음 여행지인 인도 여행으로 바로 떠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는 다음 날 바로 인도의 수도 뉴델리(New Delhi)로 비행했다. 그리하여 에베레스트의 웅장한 자연 대신 문화탐방이 시작된 것이다.

### 모두 다, 신(神)이 되는 인도

계절이 10월인데도 델리는 습기가 많았고 또 무척 더웠다. 나는 2009년 첫 인도 여행을 했었으니, 15년 만에 두 번째 방문이다. 첫 번째 여행 때는 관심 없었던 문화가, 종교가, 먹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인구는 가장 많고 땅 면적은 일곱 번

째로 넓은 나라 인도. 그리고 인구 수만 큼이나 신(神)이 많다는 다신교. 인류 4대 문명인 인더스문명을 품고 기원전까지 거슬러 오르는 오랜 문화.

히말라야 산록을 걷는 대신 우리는 문화관광유적지 탐방을 위하여 바쁜 걸음을 옮겨야 했다. 물론 인도를 신의 나라라고 하는 건 상식으로 알고 있다. 고대로부터의 힌두교는 물론 신흥종교도 계속 태어나고 있는 인도. 그런 신흥종교 중 하나에 ‘바하이 교(敎)’가 있었다. 나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종교였다. 물어 물어 찾아간 로터스 템플(Lotus Temple)은 그들의 예배당이었

니까요.”

이 에피소드를 들었을 때 미소가 나왔다. 맞는 말이었으니까. 바하이교는 19세기 중반 생긴 신생 종교. 이슬람교 계통의 외래 신종교인 바하이교까지 지금 인도에서는 번성 중이다. 이렇게 ‘신의 나라’ 인도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인도 뉴델리의 중앙 교차로에 서 있는 전승기념물 인디아 게이트(India Gate)를 둘러보고 식당을 찾았다. 예전에도 먹어 본 적이 있으나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인도의 식당들. 소고기는 없다. 인도의 국교라 할 수 있는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하니 감히 먹을 수 없는 것. 닭고기 위주의 카레와 난(naan)이란 빵이 주식이다. 난은 발효된 밀가루 반죽을 달구어진 화덕 표면에 얹어 구워 낸 빵. 인도에서는 기본적인 주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인도의 음식이 우리 입에 딱 들어맞았다. 어지러운 인도 문화와 더불어 음식 탐방도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 히말라야 산록을 날다

헬기를 못 띄운 카트만두 여행사가 우리에게 추천한 인도 여행지가 있었다. 히말라야 만년 설산을 볼 수 있다는, 산간마을 다람살라(Dharamsala)가 그곳. 히말라야산맥 ‘강그라 계곡’에 있는 이 마을에는 티베트 망명 정부가 들어서 있다. 이튿날 우리는 다람살라공항에 도착했다. 히말라야 산맥 자락의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정말 히말라야 설산이 보인다. 호텔에 체크인했다. 히말라야 산록의 호텔. 스위스 알프스 중턱의 멋진 리조트를 상상했다. 그러나 가난한 인도의 변방에서 그런 기대는 무리. 거리 구경을 나섰지만 길도 좁고, 아주 무질서하고 지저분했다. 주인 없는 개들은 또 왜 그리 많은지. 물론 티베트 불교나 이곳에 거주하는 달라이라마(Dalai Lama)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저 가난하고 무질서만 보이는 가난한 도시였다. 다람살라에서는 관광과 체험을 할 게 별로 없었다. 명상과 요가를 하는 기도원 같은 곳이 전부였으



갠지스강의 화장터 모습(왼쪽사진). 하기환 동문이 다람살라에서 패러글라이딩 활강을 준비하는 모습.

## 트리 앞에서 ‘찰칵’ 가족 사진 기념으로 선물

니가. 특별한 관광지가 없지만 여기서도 유명한 것이 하나 있었다. 패러글라이딩이었다. 작년 안나푸르나 트레킹 때도 네팔 포카라에서 한 번 시도한 적이 있다.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 창공을 가르며 히말라야 경치를 즐기는 것도 괜찮을 듯싶었다. 요즘도 포카라보다 반값도 안 되게 저렴했다. 활공을 위해 해발 2,500m까지 좁은 산길을 낚은 차로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곡예였다. 앞자리에 앉은 나는 브레이크를 힘주어 밟는 모션을 얼마나 했는지, 발에 쥐가 날 정도였다. 정말 힘든 길을 미친 듯 달리는 운전사는 길보다 더 험하게 운전을 했다. 장비를 챙기고 언덕 정상으로 올라갔다. 리더는 파라슈트를 펼쳐 놓고 적당한 바람을 기다렸다. 바람 방향이 바뀌는 대로 장소를 옮겨가며 허공에 뜰 준비를 했다. 적당한 바람이 불자 우리는 산비탈을 힘차게 뛰어내렸다. 파라슈트가 활짝 퍼지면서 낙하를 시작했다. 시원한 바람 속에 뒤로 보이는 만년 설산을 배경으로 비행하는 기분은 최고였다. 발밑으로는 푸른 차밭과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들이 보인다. 까마득히 아래로 보였던 마을까지 20여분간 하늘을 가르고 무사하게 안착했다. 비행을 마친 후 다시 다람살라로 내려오는 길에 힌두교의 아주 오래된 작은 템플에 들렀다. 인도는 힌두교이고, 힌두교는 바로 인도라 할 수 있다. 힌두교의 역사는 모든 종교보다 더 오래되었다. 힌두교의 특징은 모시는 신이 수십만 이라고 한다. 누구는 인도인 숫자만큼 신이 있다고도 한다. 말 그대로 다신교(多神敎). 그 말처럼 다~신이 되는 나라 인도. 따라서 모든 동물들도 신이다. 특히 코브라 뱀, 코끼리, 원숭이 등이 대표적인 동물 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도 신성한 신이니, 좁은 길에 소가 서 있으면 차들이 피해 다닌다. 어슬렁거리는 소는 가득이나 엉망인 교통체증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과연 혼돈과 혼란이 일상이지만 인도인들은 그것에 익숙해져서인지 불만 없이 살아가고 있다. 오후에는 호텔 안에서 2시간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는데 값이 너

무 저렴하다. 과연 인도의 저렴한 물가와 강한 달러를 실감한다. **꾸뚝 미나르 무슬림 성지** 다시 델리로 돌아온 우리는 편자브지방에 많은 시크교(Sikhism) 사원을 찾았다. 시크교는 다신교를 믿는 힌두교와 다르게, 유일신을 믿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리 측면에서는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을 내세워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반대한다. 종교개혁운동이 한창이던 16세기, 구루 나나크(Guru Nanak)가 창시한 시크교. 500년밖에 되지 않은 신흥종교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엄청난 규모의 시크사원은 곳곳에 있다. 사

**무슬림 유적지, 힌두교 성지 등 방문**  
**바하이교 로터스 템플은 유명 관광지**  
**갠지스강에서의 화장은 ‘최고의 예우’**

원은 신자와 관광객으로 아주 붐볐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한다. 경건한 사원이어서 남자나 여자나 반바지 차림은 제지를 받았다. 우리는 긴 옷을 빌려 입고 여자 머리엔 스카프를 하나씩 쓰고 사원으로 들어섰다. 물론 신발도 말리고 양말도 벗고 맨발로 들어가야 한다. 바닥 및 천장이 대리석으로 잘 장식된 강당에서 시크교 성직자들이 경전을 읽으며 설교를 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도 간혹 머리에 터번을 쓴 인도인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힌두교도가 아닌 것을 처음 알았다. 델리에는 또 다른 유명한 무슬림 성지들이 있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꾸뚝 미나르(Qutb Minar)’ 유적지가 그곳. 1193년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술탄 ‘꾸뚝’이란 인물이 이곳 힌두왕국을 패배시키고, 승전기념으로 세운 승리의 탑(미나르)이다. 꾸뚝 미나르에 입장하면 돌로 만든 거대한 사원들이 보인다. 모두 유네스코 지정 이슬람 모스크 유적군이다. 유적지 중심에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양식이 혼합된 높이 73m의 5층 석탑이 보인다. 탑 속에는 377계단 있어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다는

데 지금은 출입할 수 없다. 그 거대한 탑에 사용된 돌 색깔과 조각은 웅장하고, 멋있었고 화려했으며, 역사적 가치도 높았다. 인도를 대표하는 탑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있었다. 한국말을 한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지만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다. 인도는 이렇게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같은 여러 종교가 지배했던 나라였다. **힌두교 성지 바라나시** 오후엔 또 다른 힌두교의 성지 바라나시로 출발했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州)에 자리한 도시. 옛날 카시왕국의 수도이자 동시에 힌두교의 최대 성지가 바로 바라나시다. 히말라야

에서 발원한 갠지스강이 바로 이 도시를 관통한다. 갠지스강은 힌두교도에게는 최고의 성스러운 성지로 믿어진다. 강가 가트에는 성스러운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마시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신도들로 언제나 북적거린다. 가트에서 죽은 자를 화장하는 건 힌두교 최고의 예우라고 했다. 그 화장 모습은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하다. 문득 15년 전 이 도시 방문 기억이 떠올랐다. 갠지스강 가트 계단에서 힌두교 사제들이 탬벌린을 치면서 밤새도록 노래와 춤을 추고 있었다. 아마 힌두교 축일이었던 것 같았다. 사제들 노래가 너무 아름답고, 통역으로 들었던 가사는 인생을 음미하는 깊은 내용이었다. 이제 그 감동적 장면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바라나시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는데, 일행 중 내 것만 오지 않았다. 무슨 이유인지 델리에서 내 짐을 싣지 않은 것이다. 항공사에 클레임을 걸고 밖으로 나왔다. 바라나시에는 인도인 가이드가 마중 나왔는데, 한국 이름으로 자신을 ‘철수’라고 소개한다. 한국인들이 그만큼 많이 찾는다

는 증거일 것이다. 그의 안내로 갠지스강 석양을 보는 배를 타고 강가 바라나시 고대 건물들을 관광하기로 했다. 요즈음 느끼는 것인데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덕분인지, 아시아 어디거나 한국말을 하는 현지인이 있다. 그들 덕분에 편하게 관광을 다닐 수가 있다. 그런데 철수씨의 말에 의하면 요사이 강물이 불어서 가트가 물에 잠겼다고 했다. 내가 고대했던 사제들 노래도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정도 밖에 안 한다고 한다. 12월이 되어 히말라야가 얼어붙어 강물이 줄고 가트가 물 밖으로 나와야 사제들이 공연한다는 것. 내가 바라나시에서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밤새워 부르는 그들의 노래를 들으려는 것이었다. 실망이 크다. 힌두 사제들이 공연했던 바로 옆 가트 화장터는 오픈되어서 사용 중이었다. 여러 곳 가트에서 나무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시체를 누인 후 화장하는 것이다. 이런 화장에도 빈부가 있었다. 제대로 된 화장에는 나무값 등 상당한 경비가 들어서 서민들은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15년 전에 겁도 없이 화장터로 들어가 카메라를 대고 찍다가 혼란 추억이 떠오른다. 동네 강파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서 돈을 내라고 협박했던 기억. 여자는 화장터를 못 쓰고 남자들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놀라웠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시신을 24시간 안에 강 옆 화장터에 모셔야 효자가 된다고 했다. 2015년에도 지프차 지붕에 비단옷을 입힌 시체를 태운 채, 도심 속을 쾌속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 바라나시를 둘러보며 24시간 안에 바라나시 화장터까지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바라나시는 최악의 도시로 바뀌었다. 인구가 300만이 넘는 대도시에 제대로 포장된 길도 없는데 온갖 동물들이 서성이고 있다. 거기에 자동차, 툭툭, 인력거 리샤, 오토바이와 넘치는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인다. 자동차 매연과 길의 먼지에 목이 아픈 공기질. 정말 심하게 표현하면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혼돈의 지옥 같다는 생각이 스친다. **<계속>**

# 2024년 미국 경제는 저인플레이션 속에서 고물가



윤기향(법대 65 · 경제학 교수)

미국 대통령선거와 오즈의 마법사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이 가고 을사년의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해 전 지구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미국 대통령선거였다. 미국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대통령선거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는 2025년 1월 20일 팡파르와 카오스 속에서 미국 제 47 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의 말과 행동은 앞으로 4년 동안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트럼프 당선자는 캐나다가 미국의 51 번째 주로 편입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거리낌없이 밝혀 왔으며 그린란드를 구입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의 미국 반환을 위해 군사력을 투입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무엇이 2024 년의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를 결정지었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미국 정치의 4년을 전망해보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 후보의 승리는 최소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약간 의외였다. 필자는 선거 전에 쓴 칼럼(“미국의 대통령선거와 고물가”)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해리스 후보가 유리한 국면에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경제 문제가 선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통지수(misery index)는 미국 대통령선거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경제지표이다.

고통지수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합계한 수치를 말한다. 정치인들과 언론이 고통지수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고통지수와 대통령 선거의 결과 사이에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고통지수가 낮을수록 현직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며 반대로 그것이 높을수록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역대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증명해주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24 년(1/24 ~ 9/24)의 미국 고통지수는 역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와 비교해서 집권당인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수준이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고통지수는 7.1 로서 과거 64 년 동안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 가운데 세 번 째(2008년의 5.9, 2016 년의 7.0)로 낮은 수준이었다. 2022 년 6 월에는 인플레이션이 9.1%(연율)까지 치솟았지만 2024 년 8 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연율로 2.5%로 낮아졌다. 이는 2021 년 2 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무엇이 2024 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결정지었을까?

많은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트럼프 후보측이 내건 핵심적인 이슈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이었고 해리스 후보측이 내건 중요한 이슈들은 생식권(출산과 관련해서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으로서의 부적격성이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1980 년 카터 대통령의 재선을 좌절시켰다. 그러나 2024 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낮아져서 고통지수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트럼프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 금본위제도 채택했던 1930년대 대공황 이전에는 인플레이션 보다 디플레이션이 경제의 골칫거리 소설 ‘오즈의 마법사’는 금본위제도에 대한 비판

의 캐치 프리즈인 “당신은 4년 전보다 좋아졌습니까?” 라는 구호가 먹혀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24 년 11 월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2% 대로 낮아졌지만 2020 년 초부터 3년 여 코로나 팬데믹의 파고 앞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물가 수준 자체가 매우 높게 올라 국민들의 체감물가가 4년 전보다 크게 나빠진 것이다. 이와 같이 2024 년의 미국경제는 저인플레이션-고물가라는 특징을 보였다. 고물가가 인플레이션의 명령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실패했고 결국 해리스 후보는 저인플레이션의 유리한 국면에서도 고물가에 앞을 무릎 꿇게 되었다.

지난 3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어닥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막대한 양의 통화를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경제에 뿌렸으며 각국 정부도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출을 경제에 퍼부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급체인(supply chain)이 붕괴됨에 따라 공급측면에서의 애로 요인도 겹쳐서 물가 상승을 크게 부채질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쌍끌이 작전으로 경제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막았지만 그 대신 미국 국민

들은 고물가라는 대가를 혹독히 치루게 되었다. 고물가의 씨앗은 트럼프 때 뿌려졌고 해리스 후보가 고물가라는 독배를 마시게 된 것이다.

2024 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정도로 위력을 발휘했지만 1896 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선거의 최대의 이슈가 되었다.

1930 년 대 대공황 이후 케인즈경제학이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경제의 큰 질병으로 등장했지만 대공황과 이전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경제의 골칫거리였으며 정치적으로도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물가가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물가가 너무 떨어져도 문제인 것이다.

미국이 1776 년 독립을 쟁취하고 새 정부가 구성되었을 때 초대 재무부장관으로 재직한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미국 화폐가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제도를 꿈꾸었다. 그의 권고에 따라 미국 의회는 1792 년 금과 은을 새로운 화폐의 기준으로 하 금은 복본위제도(bimetallic standard)를 채택하게 되었다. 금은복본위제도는 그러나 1860 년대 남북전쟁의 발발과 함

께 막을 내렸다. 그 후 미국정부는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지폐는 그린백(greenbacks)이라고 불렸다. 그것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초록(그린) 색깔로 인쇄된 지폐였다. 그러나 그린백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자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1879 년에 다시 금을 화폐의 기준으로 하는 금본위제도(gold standard)를 도입했는데 이때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진정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19 세기 후반부터 금본위제도가 사실상 붕괴된 1930 년대까지 금본위제도를 채택했던 미국과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했다. 현대의 화폐경제체제 아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많은 정책당국자들을 괴롭혔지만 금본위제도 아래에서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골칫거리로 등장했으며 그것은 차입자와 대출자 사이에 심각한 대립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싫어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좋아한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현상이다.) 그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을 환영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을 혐오한다. (디플레이션은 돈의 실질 가치를 높이는 현상이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가져오는 이러한 자산 재분배의 효과가 1800 년대 말 미국에서 실제로 정치적 논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1880 년부터 1896 년까지 미국의 물가수준은 23% 하락했는데 이때는 디플레이션이 한창 기승을 부렸던 시기였다.

이는 미국 경제에서 ‘대물가하락기’(Great Deflation)였다. 디플레이션은 돈을 빌려주는 미국 동북부지방의 은행가들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주로 돈을 빌리는 남부와 서부의 농부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현상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은 금본위제도를 금과 은을 함께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는 금은복본위제도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금은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은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싼 비용으로 충분한 양의 은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금은복본위제도로의 이행은 은을 화폐로 사용함으로써 통화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고 따라서 디플레이



# 체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망령 떨쳐내지 못해

션을 막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을 화폐로 사용하려는 안은 1896년 미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가 되었다. 공화당 대통령후보였던 맥킨리(William McKinley)는 금본위제도를 고수하는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는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였다. 하지만 민주당 대통령후보였던 브라이언(William Bryan)은 금은복본위제도를 지지하였다. 그는 서민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후보였다. 그는 “당신은 인류를 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안된다”는 유명한 연설을 남겼다. 이 연설은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로 평가되고 있다. 당연히 맥킨리는 미동부의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후보였고 브라이언은 남부 및 서부의 농부들을 대변하는 포폴리즘 후보였다.

이 논쟁은 미중서부 출신의 언론인이었던 봄(Frank Baum)이 1896년 선거 후에 쓴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라는 소설에서 다시 한 번 불꽃 대결을 피게 되었다.

<오즈의 마법사>는 우리에게 영화로 더 친근하게 알려져 있다. 금년(2025년)은 <오즈의 마법사>가 영화로 만들어진



1900년 출판된 소설 '오즈의 마법사'는 1896년 미국 대통령선거의 최대 이슈였던 금본위제도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것으로도 읽혀진다.

지 82년째 되는 해이다. 소설과 영화는 도로씨(Dorothy)라는 소녀가 겪은 체험을 묘사하고 있다.

도로씨는 그녀의 고향인 캔자스에서 토네이도(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어느 이상한 땅에 착륙한다. 전통적 미국의 가치를 대변하는 도로씨는 그곳에서 세 명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농부인 허수아비(scarecrow), 산업노동자인 양철나무꾼(tin woodman), 그리

고 브라이언을 상징하는 사자(lion)다. 그들 네 명은 도로씨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마법사(wizard, 맥킨리를 상징)를 찾아 노란 벽돌로 된 위험한 길(금본위제도를 상징)을 따라 떠난다.

마침내 그들은 오즈(Oz, 미국의 수도가 있는 위싱턴을 상징)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초록색 안경(달러를 상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

다. 마법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해결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만 그것은 결국 사기임이 드러난다. 도로씨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그녀가 신은 은색신발(은본위제도를 상징)의 신비한 힘을 깨달았을 때에 풀리게 된다.

비록 공화당 후보인 맥킨리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미국은 계속 금본위제도를 유지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은본위제도를 주창했던 사람들도 선거 후 그들이 원했던 목표, 즉 인플레이션을 달성할 수 있었다. 선거를 전후해서 대량의 금이 알래스카, 호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것이다. 또한 금광에서 금을 채굴하는 신기술이 개발됨으로써 금의 채굴량도 크게 늘어났다.

이는 곧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졌고 다시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이 돌아온 것이다. 미국의 물가는 1896년부터 1910년까지 35%가 상승하였다. 오랜 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반가운 단비가 내린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 이후부터는 디플레이션의 공포는 거의 사라졌지만 인플레이션의 망령이 수시로 찾아왔고 그것이 선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언론에 나오는 트럼프와 진짜 트럼프는 다르다



서정건 (정치학과 89)

## 미 양당제전 바이든의 IRA 폐기 쉽지 않아 임기 후반 깜짝카드로 김정은과 만날 수도

“트럼프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미국 대통령이라 당황스럽죠. 그렇지만 미국을 새롭게 알게 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국 의회와 대통령제 등 미국 정치 전문가인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해안을 공유했다. 서 동문은 모교 졸업 후 미국 텍사스대에서 미국 의회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교수를 역임했다.

트럼프의 중국 정책은 한국에서도 관심을 모으는 주제다. 그러나 이번 미국 대선은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 낙태, 민주주의 등 철저히 국내 정치 이슈에 집중했다. 관세 등 통상 문제나 과학 기술 문제는 모두 중국 이슈와 유사했지만 중국 문제는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비개입주의가 대세이기에 고립주의 같은 일종의 외교 정책도 대두되

지 않았다. 그는 이에 대해 “외교 정책이 쟁점이 되지 않는 미국 대선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포퓰리즘 외교 정책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의회를 구성하는 양당제 하에선 어떤 이슈든 네 가지 정책을 예상해볼 수 있다. 중국 이슈도 마찬가지다. 신장 위구르의 강제 노동 방지 등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파적(bipartisan)으로 합의한 상황이다. 반면 기후 위기 및 중국 대응 문제에 대해선 확실하게 당파적(partisan)이다.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쪽은 민주당뿐이기 때문이다. 중국 통상 이슈엔 공화당 내에서 입장이 분열될 수 있고(wedge), 중국에 대한 입장에선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내부에서 입장이 갈리는 동시 분열(cross-cutting)이 예상된다.

트럼프가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기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는 “입법적으로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IRA를 폐기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애매한 상황”이라고 했다. IRA 통과 당시 공화당에서 단 한 명도 IRA를 찬성하지 않았음에도 IRA의 수혜 대상

은 공화당 지역구에 쏠려 있다. 대표적으로 한화큐셀이 태양광 전지 공장을 지은 조지아주 돌턴은 ‘여자 트럼프’로 유명한 공화당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의 지역구다.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IRA를 폐기하려면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딜레마를 겪으리란 것이다. 그는 “향후 미국 정치와 한국 경제를 연결하여 고려할 때 미국 의회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언론 중심, 대통령 중심 접근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 문제는 어떨까. 그는 “트럼프는 개인 차원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최초이자 최후의 미국 대통령이다. 반드시 김정은을 만날 것이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 만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변하지 않는 개성은 뭘까요? ‘관중’입니다. 북한 김정은과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전 세계 언론이 자신을 주목했던 것을 트럼프는 잊지 못해요. 초반엔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 등 미국 국내 문제 해결에 주력하지만 다음 대선 후보가 거론될 즈음 자신에게 관심이 떨어지면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날 겁니다. 2027

년쯤 깜짝 카드로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서 동문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 내에서 ‘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 기조가 팽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회담이 이뤄지면 ‘Bad deal’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CBM을 폐기하고, 핵무기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라면 우리에게 핵을 이고 살게 만드는 ‘나쁜 딜’이 된다. 그는 미국에 어필하려면 “우리 정부가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말을 예단해 일희일비하며 맞춰 주려 하지 말자며, ‘미리미리’ 보다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대응하자고 말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자마자 국내에선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작 실현 가능성은 복잡한 변수를 따져봐야 한다. 농담 섞어 ‘못 들은 척’이 최선의 대응책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 동문은 “트럼프가 대북 특사를 임명했다고 대서특필된 적 있지만 실상은 베네수엘라와 북한 등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담당하는 특사였다. 이렇듯 한국 언론에 나오는 트럼프와 트럼프를 직접 듣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언론의 속성에 돌아보면 트럼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 군인의 죽음을 대하는 국가와 국민의 자세



천양곡  
(의대 63)

우연히 'Taking Chance'란 영화(사진)를 TV로 보았다. 이라크 전투에서 전사한 미 해병대 일등병 Chance(성은 Phelps) 시신을 장례식까지 호송하는 임무를 맡은 미 해병대 현역 중령 스트로블(Strobl, 실제 인물)의 얘기를 다룬 내용이다.

스트로블 중령은 오랜 기간 전투 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하다 지금은 앨라배마주 미군기지에서도 매일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전투 중에 전사한 병사의 수를 점검하고 해당 전투 부대의 병력을 보충시켜 주는 책임 장교다. 어느 날 전사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중 자신과 같은 고향인 콜로라도주 출신 찬스 일등병의 이름을 발견하게 된다. 찬스는 19세로 이라크 전투에서 전우의 임무를 대신하다 사망했다는 기록을 보았다.

전방 임무를 마치고 후방에서 일하며 전사한 병사들에게 항상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스트로블이다. 보통은 장교가 하지 않는 전사자 시신 호송 임무를 자원하게 된다.

영화는 텔라웨어주 공군기지에 있는 전사자 시신 안치소에서 시신 호송 임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찬스 부모님이 살고 있는 와이오밍주까지 몇일에 걸쳐서 가는 여정을 생생히 보여 준다. 큰 성조기에 덮힌 찬스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 비행기, 운구 자동차에 실려 오르고 내리고 할 때마다 스트로블은 예의를 갖춰 군대식 경례를 붙인다. 호송 여정 중에 비행기 조종사의 시신 운반기내 방송을 듣고 탑승자들은 전사자에 대한 조의와 존경을 표한다. 운구차가 시골 길을 지나갈 때는 주민들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구차의 뒤를 따른다. 장례식은 군대식 예식으로 엄숙하게 거행된다. 관이 땅에 묻히기 전 큰 성조기는 접어서 부모님에게 전달된다.

나 개인적으로 군대식 장례식을 경험한 일이 있다. 나보다 한 살 위인 사돈이 미 해병대 군의관 출신이다. 그와 내가 가끔 만날 때면 매쉬(MASH) 드라마 얘기를 자주 나누었다. 사돈은 제대 후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다 몇 년전에 사

망했다. 그때 그의 군대식의 엄숙한 장례식에 참석했다. 미국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무덤에 묻힐 때까지 전사자 시신을 예의를 다해 관리하고 호송하는 것이다.

영화를 보며 작년에 작전 중 사망한 한



한국 해병이 떠올랐다. 비전투 임무 사고로 일개 졸병이 죽은 게 무슨 큰 일이냐는 나쁜 태도는 고쳐야 한다. 정부와 군부는 진실을 왜곡하여 사고를 덮으려 쉬쉬하고, 정부 반대 정치인들은 사고를 조사하여 인기를 얻으려고 떠들어댄다. 두 집단 모두 말로는 억울하게 죽은 한 해병을 진심으로 위하는 척 하지만 실은 자기 속셈 차리기에 바쁘다. 정신과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의 강화요, 공감 능력의 결핍이다.

공감은 타인의 관점, 생각, 느낌을 받아들여 이해하고 그들이 경험한 일에

동참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확증 편향은 자기 입맛에 맞는 관점과 정보만 받아들여 이를 근거로 자신이 품고 있는 원래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이다. 만약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를 접하면 그에 관해 충분한 증거가 있다 해도 무시해 버리고 만다.

공감과 확증 편향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며 성인이 되어 각 개인의 사회적, 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 환경에 따라 좋거나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심리적 설명이다.

공감능력을 키우고 확증편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신의 마음을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타인의 감정, 사고, 신념, 행동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 가끔은 자신이 타인의 입장이 되어 경청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나 표정으로 나타내면 더 좋다.

이런 기술을 익히는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명상이다. 자신의 현재 순간에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여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명상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이다.

## 기본 설정의 숨겨진 힘(Power of Default)



송명국(철학 90)  
캘스테이트 롱비치 경영학과 교수

최근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설치했다. 대부분의 앱은 위치 추적이나 푸시 알림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라 원하지 않을 경우 하나씩 설정을 변경해야 했다. 웹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은 구글로 설정되어 있었기에 바꿀 필요가 없었고, 카메라의 사진이나 동영상 해상도 설정은 바꾸어 본 적이 없다.

선택지가 넘쳐나고 매 순간 결정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기본 설정(default)'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우리의 취향, 의사결정, 그리고 기업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에릭 존슨과 다니엘 골드스타인이 수행한 유럽 국가들의 장기 기증 동의율에 대한 연구는 기본 설정이 삶과 죽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조차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줬다. 연구에 따르면 opt-out 시스템(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을 채택한 국가들의 동의율이 대부분 90%를 넘는 반면, opt-in 시스템(명시적으로 동의해야 장기 기증자로 등록)을 채택한 국가들의 동의율은 대부분 20%를 넘지 못했다.

기본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소비자들이 기본 설정을 암묵적인 권장사항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본값을 수용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해 주기 때문에 편리함을 선호하거나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부담을 느낄 경우 매력적인 선택이 된다. 또한, 기본 설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현상 유지 편향(status quo bias)과도 잘 맞는다.

기업들도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전략의 일환으로 기본 설정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퇴직 연금

을 opt-out(자동 가입)으로 설정할 경우 opt-in(적극적 가입) 방식에 비해 참여율이 훨씬 높아지고, 넷플릭스와 같은 구독 서비스 회사들은 자동 갱신을 기본 설정으로 두어 수입을 극대화한다.

2021년, 애플은 아이폰 등에서 광고 목적으로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려면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앱의 기본 정책을 변경했다. 이전에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데이터 추적을 비활성화하지 않는 한, 앱 간 자동 추적이 가능했는데, 이제 페이스북과 같은 앱이 추적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관심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것이다. 이듬해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의 62%가 정보 공유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페이스북의 매출 하락이 100억 달러(연 매출의 약 8%)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주가는 26% 하락했다.

최근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판결은 기본 설정이 독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켰다. 구글은 아

이폰 사파리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이 되는 대가로 2021년 한 해에만 애플에 180억 달러를 지불했다. 구글은 또한 모질라, 삼성, 버라이즌 등에서도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80억 달러를 지급했다. 구글이 지불한 총 금액은 검색 광고 수익의 약 16%에 달하는데 2024년 8월 연방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Bing의 시장 점유율이 1% 늘어나면 약 20억 달러의 광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자사의 검색 엔진을 애플의 기본 엔진으로 설정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실패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본 설정이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중요한 결정에 대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명을 구하는 장기 기증 정책에서부터 디지털 환경을 형성하는 검색 엔진에 이르기까지, 기본 설정은 인간 행동과 기업 전략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문성길(의대 63)  
(워싱턴DC 전 동창회장)

##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어만 있을 뿐이라 하겠다.

오래 전부터 알려져 온 대 사상가들의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쟁, 성선설(性善說: 맹자 BC 371-289)과 성악설(性惡說: 순자 BC 300-230)이 있으나 이는 오직 인간을 한 단면만을 본, 다시 말해 인간이라는 엄연한 동일현상, 물체를 오직 다른 시각에서 본 결과일 뿐 것이 아닌가 한다.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제각기 다른 부위를 만지고 기술하는 것과 같이 옳은 관찰도, 그른 관찰도 아닌 오직 한쪽으로만 투시된 사실만을 열심히 기술한 것에 불과한 결과일 뿐이다. 어떻게 대사상가들이 그러한 편협함에 경도되어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이제껏 들어온 좁은 소견으론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악이란 선함의 부족, 결여현상이라는 상대적 차이일 뿐이다, 라는 것이다.

좌우(左右)라는 말도 그렇다. 영원히 좌우일 것 같지만 오직 상대적일 뿐이다. 오늘의 좌가 자신의 왼쪽엔 자신은

상대적으로 우가 됨을 우리들이 매일 목격하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사실이 이러한 진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죽기 살기로 아귀다툼하며 내가



옳거니, 내가 그르다니 싸움박질은 더 이상 무의미하며 서로가 정력만 소비하는 우둔한 짓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자명할 노릇이 아닐까. 이젠 그 우둔함에서 의당 벗어나야 할 때다.

서로의 다른 의견들이 의당 있을 수 있겠으나 그 각기 다른 의견들을 취합, 보

완하면 멋진 진정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화합과 긍정의 힘은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

오해, 불신, 왜곡의 결과물은 오직 참담할 뿐, 참으로 일을 망치는 데는 으뜸이요, 일의 성취에는 으뜸인 장애물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다. 지도자연 하는 사람들, 자고 깨면 헛소리 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란 말은 실재론 자신들의 권력유지와 부귀영화가 속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세상이 아닌가.

절대적 선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이라도 보다 더 나은 공동선을 진정 추구하려는 집단들이 있음을 굳게 믿는다. 하루바빠 국내정세가 정돈되어 국민들의 정서와 생활의 안정을 도래하기를 학수고대한다.

영어권에서 Never say, ‘Never’라는 말이 있지만 결코(Never)라는 말은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는 안 된다는 일종의 금기어(禁忌語)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일들, 단 하루, 심하게 말해 단 1 초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뜻,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 못함을 의미해서일 것이다.

이런 논리를 원용한다면 절대적이란 용어 사용 자체에 신중이 필요하다 하겠다. 원래 절대적이란 말은 종교적으로 ‘절대자의 존재’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물이나 현상들을 말할 때 오직 ‘상대적’인 수식

###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 왜 ‘반란의 우두머리’인가?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지 올해 꼭 160 주년을 맞는다. 원래 명칭은 ‘아메리칸 시빌 워’ (American Civil War), 우리말로 직역하면 ‘미국의 내전’이 되겠다. 우리가 남북전쟁이라 부르게 된 건 아마 6·25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한반도의 동족상잔도 따지고 보면 남북간의 전쟁이 아닌가.

그래서인지 두 나라의 ‘내전’은 공통점이 적지 않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 속앓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국은 총성이 멈춘지 한 세기하고도 반백 년이 넘었는데도 상처가 봉합되지 않아 종종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남북전쟁은 노예제를 지지한 남부의 11 개 주가 연방 탈퇴를 선언하며 링컨 대통령의 북군을 공격해 벌어졌다. 교과서엔 사상자가 무려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당시 미국 인구의 10%가 넘는 숫자다. 동족 간에, 그것도 한때 한 술밥을 먹었던 병사들이 남과 북으로 갈려 총부리를 들이댔으니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상상조차 어렵다.

전쟁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은 로버트 리, 다름아닌 남군 총사령관이다. 링컨의 입장에서선 반란군의 우두머리나 다름없겠다.

전쟁이 끝난 뒤 로버트 리는 어찌 됐을까. 당연히 처형됐을 것으로 짐작하겠지

만 천만에. 제 발로 걸어서 고향 버지니아로 갔다. 거리마다 환영인파가 넘쳐났다. 패장이 개선장군으로 둔갑한 것이다. 워싱턴 대학(훗날 그의 업적을 기려 워싱턴 & 리로 개명)은 그를 총장으로 모셨다. 세상의 온갖 영예와 영광을 한 몸에 받으며 여생을 마쳤다.

그렇다고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링컨이 암살당한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앤드루 존슨은 ‘정의를 곧추세우겠다’며 로버트 리를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를 반란군의 수괴로 처형해 순국한 북군 병사의 제단에 희생제물로 바치겠다고 별렀다.

그가 목숨을 부지하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윌리시즈 그랜트(나중에 13대 대통령)의 구명운동 덕분이다. 북군 총사령관으로 로버트 리의 적수다. 그랜트는 리에게 반역의 올가미를 씌운다면 사령관직을 사퇴하겠다고 엄포를 냈다. 항복 문서엔 남군 병사들의 안전한 귀향과 사면 조건이 포함돼 있다며 이 조항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한 것.

그랜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대통령에 지워진 가장 큰 책무는 국민 대통합이다. 로버트 리를 처벌하면 남과 북의 깊게 팬 골은 영원히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수정헌법 제2조에 의거, 로버트 리를 포함한 남부 쪽 지도자들을 사법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편다. 이 조항은 민병대의 무장과 함께 개인의 총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장군의 동상이 2021년 주 대법원의 허가에 따라 설치된지 131년 만에 주 대법원 허가에 따라 철거되고 있다.

기 소유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병대는 나중에 주 방위군으로 확대 편성된다. 이 조항을 헌법에 명시한 건 다 이유가 있다. 대통령이 독재할 경우에는 주 정부가 군대를 동원, 대통령을 권좌에서 쫓아낼 수 있게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남부 쪽 시각으로는 링컨이 일방적으로 노예를 해방하는 등 독재자나 진배

없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논리다.

로버트 리는 지금도 일부 남부인들 사이에서 영웅 취급을 받는다. 왜 그럴까.

당시 널리 회자했던 키워드 ‘로스 코츠’ (Lost Cause)에 답이 있다. ‘잃어버린 대의’ 라고 할까. 비록 전쟁에선 졌지만 ‘대의’ 에서만큼은 패하지 않았다고 믿었다. 부의 추구하고 기독교 복음주의, 그리고 백인우월주의가 그들에게 ‘대의’ 였던 것. 극우성향의 백인들이 리의 동상을 신주 모시듯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로버트 리도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섬뜩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도 흑인을 열등한 인종으로 다뤘다. 비록 노예 신분일 망정 아프리카에서 보다 삶의 질이 훨씬 낫지 않느냐는 등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흑인에 관한 한 죄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

몇해 전엔 버지니아대학 풋볼 경기에서 ESPN이 아시아계 스포츠캐스터에 중계를 맡길 예정이었으나 캠퍼스에서 인종 소요 사태가 벌어지자 그를 뺐다. 남군 사령관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로버트 리, 백인우월주의자들에게 영웅으로 보이겠지만 소수계에게 인종 화합의 ‘대의’를 거스린 ‘반역자’가 아닐까.

(문리대 66)

# 관악캠퍼스 50년 ... 글로벌 대학으로 자랐다

## 캠퍼스 종합화 배경과 의미

2025년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 종합화 50년을 맞이했다.

1946년 개교 이후 흩어져 있던 단과대학들이 1975년 종합화되면서 다양한 학문 간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모교는 글로벌 명문 대학을 목표로 꾸준히 발전해 세계 30위권 대학의 반열에 올랐다. 모교 출신 인재들은 과거의 전통을 이어받아 재계·정계·산업계·문화계 전반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다.

모교의 종합화는 1970년대 중반 우리나라 중점 산업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고급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기됐다. 반도체·원자력 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배출해내는, 내실 있는 교육과 연구가 절실했던 것. 종합화 이전 모교는 연립대학의 성격이 너무 강해 단과대학 단위를 넘어선 학술교류나 합동 연구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교육·연구의 내실화를 위해선 각 기구의 유기적 연결이 필요했다. 캠퍼스 종합화는 이를 위한 기본적 조치였다.

1958년에 이미 서울대학교 종합계획 수립위원회가 설치됐으며 1960년 7개년, 1962년 5개년, 1966년 6개년 등으로 변경되다가 1968년 10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전 및 종합화가 기정사실로 굳어지자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거, 총장 산하에 기획위원회와 건설본부가 설치됐다.

1966년 6개년계획 때까지만 해도 메인 캠퍼스는 동송동 일대였다. 문리대·의대·법대가 모여 있던 곳이었으며, 학교 측과 정부 당국자 모두 기존 건물 또는 부지를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획의 규모를 확장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왔고,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협소한 동송동을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되자 새로운 부지를 모색했다.

초기엔 공대가 있던 공릉동과 농대가 있던 수원, 그리고 시흥군 안양읍 등이 물망에 올랐다. 지형과 주변 환경, 부동산 투기까지 여러 요소를 고려하느라 2년이 소요, 1970년에야 관악산 서북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서울 중심부에서 가까운 한강 남쪽이란 지리적 이점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광범위한 교육 활동영역 등이 선정 이유로 꼽혔다. 당시 관악캠퍼스 부지에 골프장을 건설한 동서관광주식회사는 정부 발표에도 땅을 내놓지 않으려 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강한 의지로 확정지었고 1971년 4월 2일 종합캠퍼스 기공식이 열렸다.

관악캠퍼스 조성사업은 인문관·사회관·자연과학관·중앙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파워플랜트·기숙사·종합운동장 등 핵심 건물을 완공하는 1단계와 약학관·환경가정관·ROTC



## 규모 확장하라 박정희 대통령 지시에 관악 낙점 종합화 후 문리대는 3개 대학으로 나뉘어져

## 2025년은 진정한 캠퍼스 종합화 원년의 해 학부대학·첨단융합학부 등 교육 혁신 박차

관·예능관 등을 완공하는 2단계, 대강당·박물관·공학관·실내체육관을 완공하는 3단계 등으로 진행됐다.

1974년 3월 30일 1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됐고, 1975년 1월 21일부터 이전을 시작해 동송동에 문리대·법대, 용두동에 사범대, 중앙동에 상대, 방산동에 음대 등 각지에 흩어져 있던 단과대학이 1976년까지 이전을 마쳤다. 이때 학과 체제에도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나 문리대가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등 3개의 기초학문대학으로 나뉘었고, 상대도 해체돼 경제학과가 사회대에 통합됐고 경영학과는 경영대로 독립했다.

공간의 변화와 함께 교육기구가 재편된 것이다. 1976년 3월 수의과대학이 농과대학에서 분리 독립했으며, 일반대학원의 업무 대부분을 각 단과 및 학과로 이관했고, 교육과정 또한 학부과정과 종합화했다. 전문대학원은 학부과정이 없는 경우만 존속시키고, 경영대학원·교육대학원·신문대학원은 폐지했다.

종합화를 기점으로 대학행정의 본부 집중이 본격화했다. 이전엔 학칙이 8개 존재할 만큼 기존 교내 기구들이 제각기 독립된 위상을 가졌으나 1975년 7월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을 계기로 8개 학칙이 폐지되고 단일 학칙이 등장했다. 본부가 직접 학과 단위를 컨트롤 하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마련된 것.

이어서 1980년 공대, 2003년 농대와 수의대, 2010년 보건대학원이 이전을 완료하면서 서울대는 관악의 메인캠퍼스와 연건의 의학캠퍼스로 양분됐다가 2014년 평창캠퍼스 완공, 2020년 시흥캠퍼스 1단계 완공을 거치면서 멀티캠

퍼스의 형태를 띠게 됐다.

### SNU 커먼즈·거주형 대학 도입

“진정한 종합화는 캠퍼스의 통합만이 아니라 대학의 본분인 교육과 연구에서의 통합을 발판으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유홍립 총장은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종합화 50주년의 의미를 이같이 말했다. 공간은 50년 전 통합됐지만, 교육·연구 면에서 진정한 종합화를 달성했는지 자문이 전제된 말이었다.

모교가 종합화 50주년을 기해 분과 학문과 전공의 칸막이를 넘어선 융합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대만의 ‘융합 교육 플랫폼’을 제시하며 이에 걸맞은 물리적 환경도 조성하기 시작했다. 모교가 추진하는 융합 교육 플랫폼의 두 축은 ‘첨단융합학부’와 ‘학부대학’이다.

지난해 3월 신설된 첨단융합학부는 입학 후 3학기 동안 첨단 분야 융합 교육을 받고 △디지털헬스케어 △융합데이터과학 △지속가능기술 △차세대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5개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는 학사 과정이다. 매년 정원 218명을 받아 ‘첨단과학 기술 전문성과 초학제적인 융합 소양과 소통,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학부대학’을 출범하고 융합 교육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기에 나섰다. 학부대학은 기존의 전공별 교육을 지양한다. 서울대 전체 학생에게 소속과 전공 구분 없이 미래사회에 걸맞은 공통핵심역량교육, 융합교육, 글로벌교육을 제공한다.

학부대학의 핵심 활동 ‘베리타스 세미나’는 신입생 3800명을 120명씩 나눠 사고와 토론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수업 진행은 전공이 다른 교수진 2인 이상이 함께 맡는다. 이 수업에선 인간, 사회, 자연, 기술을 아우르는 주요 문제들에 대해 ‘큰 질문’을 던진다. 강의와 토론, 20명 규모의 소그룹을 지어 분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이번 해부터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정원 124명)와 ‘학부대학 광역’(정원 36명) 모집단위를 두고 무전공 신입생도 선발했다. 자유전공학부는 기존 체계대로 2학년 때부터 의치대·간호대·약대·수의대·사범대 등 국가자격증이 나오는 단과대를 제외한 10개 단과대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고 소속은 자유전공학부로 유지한다. ‘학부대학 광역’ 학생은 2개 학기 이상 이수 후 전공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유전공학부와 같지만, 음대·미대·첨단융합학부 등을 제외한 7개 단과대 내에서 전공을 결정하고 전공 결정 후 해당 소속 학과로 소속이 변경된다.

이와 동시에 캠퍼스 곳곳에선 소통과 협업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도 생겨나고 있다. SNU 커먼즈(SNU Commons)와 거주형 대학 ‘LnL(Living & Learning)’이 그 일환이다.

SNU 커먼즈는 행정관 앞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인근 중앙도서관, 행정관, 학생회관, 문화관을 종횡으로 엮은 공통 공간이다. 캠퍼스 중앙에 조성된 커먼즈(공통장)에서 학생들은 더 자주 모이고 부딪히며 이전과 질적·양적으로 다른 교류를 경험하게 된다.

그 시작점으로 지난해부터 중앙도서관 본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모교 거주형 대학 ‘LnL’에선 올해로 2년째 다양한 전공과 출신 지역 학생의 융합, 주거와 배움의 통합이 이뤄지고 있다. LnL 학생은 모교 기숙사 906동과 919D동에 거주하며 공동체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비교과 활동으로 다양한 단체 활동을 경험하며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운다.

www.snuaa.org

#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 종신이사

###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 워싱턴주 -故고광선 (공대 57)
- 뉴욕 - 조상근 (법대 69)

###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 조지아 - 주중광 (약대 60)
-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 골드이사 (\$10,000이상)

- 워싱턴주 - 故양남주 (명예이사)
-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 남가주 - 김보연 (간호대 63)
-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 남가주 - 박종수 (수의 58)
-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 남가주 - 서동영 (사대 60)
-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 남가주 - 이홍표 (의대 58)
-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 남가주 - 하기환 (공대 66)
-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 남가주 - 홍수웅 (의대 59)
-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 뉴욕 - 오인석 (법대 58)
-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 미시간 - 박용화 (의대 52)
-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 시카고 - 조규승 (문리 72)
-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 커네티컷 - 김창수 (의대 54)

-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 필라델피아 - 손재욱 (가정 77)
-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 실버이사 (\$5,000이상)

- 남가주 - 故김원경 (약대 59)
- 남가주 - 권봉성 (문리대 64)
-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 남가주 - 이종묘 (간호대 69)
-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 뉴욕 - 김현중 (공대 63)
- 북가주 - 강재호 (상대 57)
- 북가주 - 박순희 (의대 60)
- 북가주 - 남광순 (음대 64)
-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 워싱턴DC - 남옥현 (경영대 84)
- 워싱턴DC - 배성호 (의대 65)
-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 필라델피아 - 신의석 (공대 53)
- 미네소타 - 황호숙 (사대 65)

### 종신이사 (\$3,000이상)

- 남가주
- 故노재성 (법대 58)
- 故서영석 (의대 55)
- 故오재인 (치대 33)
- 故윤낙승 (의대 60)
- 강신용 (사대 73)
- 곽용길 (문리대 59)
- 권기홍 (의대 60)
- 김광은 (음대 56)
- 김기형 (상대 75)
- 김대중 (의대 70)
- 김동훈 (의대 71)
- 김보연 (간호대 63)
- 김상찬 (문리 65)
- 김성호 (법대 64)
- 김수영 (사대 57)
- 김자성 (의대 79)

- 김재영 (농대 62)
- 김정빈 (공대 66)
- 나두섭 (의대 66)
- 류재풍 (법대 60)
- 박명근 (상대 63)
- 박용필 (문리대 66)
- 박원준 (공대 53)
- 박운수 (문리대 48)
- 방명진 (공대 73)
- 백길영 (의대 58)
- 백만일 (공대 64)
- 서동영 (사대 60)
- 신건호 (법대 53)
- 신경자 (사대 60)
- 신영찬 (의대 62)
- 심상은 (상대 54)
- 안병일 (의대 63)
- 오홍조 (치대 56)
- 이근원 (공대 67)
- 이명선 (상대 58)
- 이성숙 (공대 56)
- 이세열 (사대 57)
- 이승훈 (상대 74)
- 이채진 (문리대 55)
- 이창광 (상대 61)
- 임낙균 (약대 64)
- 임용오 (의대 57)
- 전경배 (의대 69)
- 전희택 (의대 58)
- 정규희 (의대 64)
- 정동구 (공대 57)
- 정임현 (간호대 72)
- 정철룡 (의대 55)
- 제영혜 (가정대 71)
- 조용원 (문리대 66)
- 조환원 (의대 57)
- 차민영 (의대 76)
- 차중환 (사대 54)
- 한호동 (공대 58)
- 홍성선 (약대 72)
- 홍중화 (약대 74)

- 뉴욕
- 故김광호 (문리대 62)
- 故한창섭 (문리대 57)
- 故김종률 (사대 51)

- 강에드워드 (사대 60)
- 고애자 (음대 57)
- 권영국 (상대 60)
- 김승호 (공대 71)
- 김영용 (치대 55)
- 김한중 (의대 56)
- 김해암 (의대 52)
- 배정희 (사대 54)
- 서영숙 (간호대 67)
- 석창호 (의대 66)
- 손진태 (약대 67)
- 신용남 (농대 70)
- 오용호 (의대 66)
- 윤인숙 (간호대 63)
- 윤종숙 (약대 66)
- 이강홍 (상대 60)
- 이기영 (농대 70)
- 이대영 (문리대 64)
- 이영재 (상대 58)
- 이재덕 (법대 60)
- 이재량 (상대 61)
- 이전구 (농대 60)
- 이준행 (공대 47)
- 이태호 (상대 58)
- 조대일 (사대 53)
- 최수용 (상대 55)
- 최영태 (문리대 67)
- 최한용 (농대 58)
- 추재욱 (의대 57)
- 한태진 (의대 58)
- 허선행 (의대 58)

- 뉴잉글랜드
- 故고일석 (보건대 69)
- 故박경민 (의대 53)
- 김광수 (문리대 73)
- 고종성 (사대 75)
- 김문소 (수의대 61)
- 김용구 (공대 66)
- 오세경 (약대 61)
- 윤선홍 (치대 64)
- 김보연 (공대 68)
- 전신의 (문리대 57)
- 정정욱 (의대 60)
- 정태영 (문리대 71)
- 조만연 (상대 58)
- 홍지복 (간호대 70)

- 워싱턴DC
- 故방은호 (약대 43)
- 강연식 (사대 58)
- 공순옥 (간호대 66)
- 권기현 (사대 53)
- 민홍기 (문리대 61)
- 박평일 (농대 69)
- 서희열 (의대 57)
- 오인환 (문리대 63)
- 이내원 (사대 58)
- 이선구 (문리 65)
- 이윤주 (상대 63)
- 최재귀 (미대 63)
- 최지원 (의대 61)

- 미시간
- 故남상용 (공대 52)
- 故정태 (의대 57)
- 장병진 (공대 61)

- 북가주
- 박종성 (법대 53)
- 박진영 (공대 66)
- 손석보 (공대 68)
- 윤정옥 (약대 50)
- 최경선 (농대 65)
- 한만섭 (공대 49)
- 황동하 (의대 65)

- 시카고
- 故이윤모 (농대 57)
- 강영국 (수의대 67)
- 소진문 (치대 58)
- 심상구 (상대 63)
- 이재희 (치대 67)
- 장윤일 (공대 60)
- 조봉완 (법대 53)
- 최의필 (의대 53)
- 한재은 (의대 59)

종신이사 후원금  
Century Foundation Fund \$1,202,303  
(12/31/24 까지)

- 오레곤
- 김상순 (상대 67)
- 박희진 (농 78)
- 이은상 (상대 52)
- 샌디에고
- 임천빈 (문리대 61)
- 유현주 (문리 65)
- 진성호 (공대 64)

- 미네소타
- 김권식 (공대 61)
- 김태환 (의대 58)
- 남세현 (공대 67)
- 변우진 (인문대 81)
- 조형준 (문리대 62)

- 오하이오
- 김용현 (경원 66)
- 이지우 (의대 68)

- 워싱턴주
- 故김영일 (공대 53)
- 이명자 (간호대 74)
- 이희백 (의대 55)
- 임현민 (공대 84)

- 조지아
- 김용건 (문리대 48)
- 석호태 (공대 85)
- 이중석 (의대 54)

- 커네티컷
- 故유시영 (문리대 68)

- 플로리다
- 김중권 (의대 63)
- 임필순 (의대 54)

- 휴스턴
- 박진섭 (의대 67)

- 텍사스
- 박태우 (공대 64)
- 이광연 (공대 60)
- 조시호 (문리대 59)

-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리대 55)
- 김현영 (수의대 58)
- 서중민 (공대 64)
- 손재욱 (가정대 77)
- 신성식 (공대56)
- 주기목 (수의대 68)

- 하트랜드
- 김명자 (문리대 62)
- 김시근 (공대 72)
- 배규영 (사대 68)
- 오명순 (가정대 69)
- 이교락 (의대 53)

- 하와이
- 故최경윤 (사대 51)

- 알래스카
- 윤제중 (농대 55)

### 이사 구분

-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 골드이사 \$10,000 이상
- 실버이사 \$5,000 이상
- 종신이사 \$3,000 이상



#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4.6.30;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 남가주

- 강경수 (법 58)
- 강동순 (법 59)
- 강윤희 (간 46)
- 강재호 (상 81)
- 강창만 (의 58)
- 강춘자 (간 69)
- 강호석 (상 81)
- 고남규 (의 68)
- 고석규 (치 65)
- 권기상 (대 72)
- 권봉성 (문 64)
- 김경 (문 63)
- 김경수 (사 58)
- 김경자 (미 60)
- 김진진 (문 62)
- 김동석 (음 64)
- 김영배 (미 61)
- 김경수 (치 54)
- 김경옥 (미 61)
- 김경자 (미 60)
- 김광은 (음 56)
- 김기형 (상 75)
- 김난영 (공 53)
- 김동산 (법 59)
- 김명숙 (농 58)
- 김명자 (간 60)
- 김명희 (간)
- 김문업 (농 83)
- 김범수 (문 61)
- 김병연 (공 68)
- 김병완 (공 58)
- 김상찬 (문 65)
- 김석훈 (법 59)
- 김성호 (법 64)
- 김성환 (의 65)
- 김수향 (간 58)
- 김순갈 (법 54)
- 김순자 (치 57)
- 김영덕 (법 58)
- 김옥경 (상 60)
- 김용수 (간 69)
- 김용채 (문 61)
- 김원탁 (공 65)
- 김일영 (의 65)
- 김자성 (의 79)
- 김재영 (농 62)
- 김정애 (간 69)
- 김정호 (농 59)
- 김종표 (법 58)
- 김준일 (공 62)
- 김창진 (공 77)
- 김태환 (문 78)
- 김태윤 (법 53)
- 김학철 (의 55)
- 김해숙 (미 68)
- 김홍목 (문 60)
- 김희창 (공 64)
- 니두섭 (의 66)
- 니승욱 (문 59)
- 니용화 (상 79)
- 노명호 (공 61)
- 노진걸 (사 70)
- 문경호 (문 59)
- 문병길 (문 61)
- 마동일 (의 57)
- 민일기 (의 69)
- 박영근 (상 63)
- 박민식 (수 65)
- 박부강 (사 64)
- 박상원 (대 20)
- 박원준 (공 53)
- 박용 (문 89)
- 박우선 (공 57)
- 박은숙 (미 62)
- 박은희 (미 68)
- 박은자 (농 64)
- 박인수 (농 64)
- 박인창 (농 65)
- 박일우 (의 70)
- 박임하 (치 56)
- 박자경 (상 60)
- 박종수 (수 58)
- 박찬호 (공 58)
- 박찬호 (농 63)
- 박한영 (치)
- 박혜란 (미 70)
- 박해옥 (간 69)
- 박호현 (의 52)
- 박흥근 (공 64)
- 박희자 (음 68)
- 방명진 (공 73)
- 배동완 (공 65)
- 백옥자 (음 71)
- 백혜란 (미 70)
- 벤자민 흥 (문 53)
- 서동영 (사 60)
- 서명희 (농 67)
- 서세진 (공 62)
- 서지원 (공 69)
- 선우원근 (공 66)
- 성낙호 (치 63)
- 성주경 (상 68)
- 손갑수 (의 59)
- 손기용 (의 55)
- 손학식 (공 61)
- 송명국 (문 81)
- 송태진 (공 79)

- 신건호 (법 63)
- 신동국 (수 76)
- 신영찬 (의 62)
- 신정연 (미 61)
- 양승문 (공 65)
- 양승조 (음 70)
- 양은석 (음 70)
- 양태준 (상 56)
- 오길평 (치 61)
- 오선웅 (의 63)
- 오찬수 (의 57)
- 故 오형원 (의 53)
- 유초식 (상 61)
- 윤희영 (의 57)
- 위종민 (공 64)
- 유덕영 (공 57)
- 유영자 (음 63)
- 유이중 (농 74)
- 유석환 (치 55)
- 유태식 (의 61)
- 윤경민 (법 55)
- 윤영돈 (법 59)
- 윤석철 (상 60)
- 윤희정 (치 65)
- 이강훈 (치 65)
- 이건일 (의 62)
- 이정희 (인 83)
- 이기준 (법 54)
- 이명숙 (농 58)
- 이방기 (농 59)
- 이법식 (공 61)
- 이상우 (의 56)
- 이서희 (법 70)
- 이성숙 (공 56)
- 이성자 (간 76)
- 이소희 (의 61)
- 이영수 (상 60)
- 이영일 (문 53)
- 이영현 (간 70)
- 이윤환 (공 64)
- 이원택 (의 65)
- 이원익 (문 73)
- 김용수 (간 69)
- 이익삼 (사 58)
- 이장길 (치 63)
- 이재권 (법 56)
- 이정근 (사 60)
- 이정남 (공 63)
- 이정화 (공 52)
- 이종모 (간 69)
- 이준호 (상 65)
- 故 이종희 (공 53)
- 이진영 (의 65)
- 이찬용 (치 72)
- 이창무 (공 54)
- 이창신 (법 57)
- 이청광 (상 61)
- 이해진 (문 55)
- 이태영 (법 60)
- 이호 (음 92)
- 임동규 (미 57)
- 임동호 (약 55)
- 임문빈 (상 58)
- 임석중 (공 50)
- 장기열 (치 55)
- 장기창 (공 56)
- 장대욱 (음 57)
- 장동석 (문 66)
- 장문섭 (공 69)
- 장병희 (인 86)
- 장소현 (미 65)
- 장용우 (약 57)
- 장원경 (미 73)
- 장윤희 (사 54)
- 장인숙 (간 70)
- 장정웅 (미 64)
- 장춘호 (공 56)
- 전경배 (의 69)
- 전낙관 (사 60)
- 전반수 (농 71)
- 전상우 (사 52)
- 전원일 (의 77)
- 정근희 (의 64)
- 정동주 (상 72)
- 정명자 (사 56)
- 정연희 (상 63)
- 정연웅 (공 63)
- 정인환 (법 54)
- 정재형 (약)
- 정철룡 (의 61)
- 정현진 (간 68)
- 정형민 (문 71)
- 정혜령 (간 72)
- 정형 (공 64)
- 제영혜 (상 71)
- 조경애 (공 64)
- 조동철 (사 68)
- 조재국 (농 67)
- 주선희 (문 66)
- 주정래 (상 65)
- 조종자 (간 61)
- 조태욱 (사 60)
- 주정래 (상 65)
- 주훈 (음 69)
- 차승철 (법 54)
- 차중환 (사 54)
- 최규환 (법 69)
- 천원희 (가 71)


- 최복철 (공 70)
  - 최영구 (상 61)
  - 최영순 (간 69)
  - 최영지 (미 62)
  - 최인숙 (사 67)
  - 임동규 (미 57)
  - 한귀희 (미 68)
  - 한동수 (의 60)
  - 한서동 (의 61)
  - 한성구 (상 53)
  - 한원민 (의 59)
  - 한의일 (공 62)
  - 한정현 (치 55)
  - 한홍택 (공 60)
  - 함승욱 (간 73)
  - 현기웅 (문 64)
  - 홍성선 (약 72)
  - 홍선례 (음 70)
  - 홍선일 (공 71)
  - 홍수웅 (의 59)
  - 황건홍 (공 55)
  - 황현상 (의 55)
- 뉴욕**
- Ai Ja Lee
- 고애자 (음 57)
  - 계동휘 (치 67)
  - 곽선식 (공 61)
  - 강상진 (의 53)
  - 고순정 (간 69)
  - 고애자 (음 57)
  - 권문용 (미 61)
  - 권영국 (상 60)
  - 권영대 (공 69)
  - 권정대 (의 58)
  - 금영천 (약 72)
  - 김경일 (치 61)
  - 김광현 (미 57)
  - 김문경 (약 61)
  - 김복영 (간 69)
  - 김승호 (공 71)
  - 김우영 (상 60)
  - 김욱현 (의 59)
  - 김영무 (문 75)
  - 김영용 (치 55)
  - 김영진 (문 50)
  - 김영철 (의 55)
  - 김영휘 (법 80)
  - 김용연 (문 63)
  - 김영철 (상 64)
  - 김정희 (간 69)
  - 김종원 (가 58)
  - 김진자 (간 60)
  - 김창수 (약 64)
  - 김창희 (미 65)
  - 김태일 (공 68)
  - 김학자 (간 59)
  - 김해일 (의 52)
  - 김현중 (공 63)
  - 이민인 (공 68)
  - 임영호 (공 72)
  - 장용복 (상 58)
  - 정선주 (간 68)
  - 정정욱 (의 60)
  - 정창준 (의 50)
  - 최선의 (문 69)
  - 최진민 (공 71)
  - 한서동 (의 61)
- 뉴저지**
- 김영애 (사 56)
- 네바다**
- 김정상진 (상 59)
  - 김상수 (상 67)
  - 김영중 (치 66)
  - 김용재 (의 60)
  - 김택수 (의 57)
  - 이학은 (약 57)
- 달라스**
- 최희기 (공 61)
- 텍사스**
- 이희삼 (문 68)
- 미네소타**
- 김권식 (공 61)
  - 문성민 (공 88)
  - 민통기
  - 박원자 (공 88)
  - 송정원 (문 53)
  - 윤정식 (농 86)
  - 이창재 (문 56)
  - 유호근 (문 73)
  - 유순재 (의 63)
  - 윤병남 (사 62)
  - 윤영석 (의 57)
  - 윤종수 (약 66)
  - 윤철 (문 54)
  - 윤현남 (공 70)
  - 이대영 (문 64)
  - 이명준 (공 72)
  - 이문봉 (미 76)

- 이상근 (상 84)
  - 이상무 (의 56)
  - 이영숙 (간 60)
  - 이영일 (의 60)
  - 이용대 (약 63)
  - 이유성 (사 57)
  - 이재진 (의 59)
  - 이준우 (음 65)
  - 이준혁 (공 48)
  - 이종욱 (농 69)
  - 이종호 (의 63)
  - 이태안 (의 61)
  - 이희만 (간 70)
  - 이홍우 (공 50)
  - 전병삼 (약 54)
  - 정동성 (상 58)
  - 정인용 (의 71)
  - 정해민 (법 55)
  - 정화순 (사 61)
  - 조남천 (사 59)
  - 조대영 (공 61)
  - 조득환 (의 61)
  - 조종수 (공 64)
  - 조태환 (상 56)
  - 진봉일 (공 50)
  - 차국민 (공 56)
  - 최영대 (문 67)
  - 최승운 (의 61)
  - 최상진 (의 53)
  - 최준희 (의 58)
  - 최정웅 (사 63)
  - 최한용 (농 58)
  - 최현무 (법 69)
  - 한병운 (문 71)
  - 한태진 (의 58)
  - 함중금 (간 66)
  - 허경력 (의 71)
  - 허경일 (의 71)
  - 허선형 (의 58)
  - 허정열 (사 63)
  - 홍정표 (음 67)
- 북가주**
- 강재호 (상 57)
  - 김교연 (문 72)
  - 김성철 (공 82)
  - 김윤길 (사 77)
  - 김정복 (사 55)
  - 김정희 (법 56)
  - 김현양 (공 64)
  - 남광순 (음 64)
  - 민병근 (공 65)
  - 박서규 (법 56)
  - 박성수 (공 59)
  - 박영훈 (공 72)
  - 박진영 (공 66)
  - 송영훈 (상 57)
  - 신규영 (공 64)
  - 안호삼 (문 58)
  - 윤성희 (사 58)
  - 위창호 (의 67)
  - 이관모 (공 55)
  - 이성환 (공 65)
  - 이성형 (공 57)
  - 이영우 (문 72)
  - 이정남 (공 56)
  - 이흥기 (공 62)
  - 임승배 (공 66)
  - 임정란 (음 76)
  - 전병련 (공 54)
  - 정지선 (상 58)
  - 정춘임 (간 67)
  - 정하규 (의 63)
  - 조태욱 (사 60)
  - 최경선 (농 65)
  - 한상봉 (수 67)
  - 홍병의 (공 68)
  - 황동하 (의 65)
- 샌디에고**
- 고경하 (공)
  - 김인철 (약 70)
  - 남창우 (사 56)
  - 이문상 (공 62)
  - 오계환 (공 64)
  - 유현주 (문 65)
  - 윤진수 (의 57)
  - 이문상 (공 62)
  - 김부근 (의 58)
  - 김영란 (사 58)
  - 김원호 (공 64)
  - 김종환 (치 88)
  - 김해식 (공 59)
  - 김희주 (의 62)
  - 나윤수 (사 57)
  - 남준일 (사 69)
  - 박인영 (의 69)
  - 박일영 (문 59)
  - 박찬모 (공 54)
  - 박후우 (문 61)
  - 배성호 (의 65)
  - 백순 (법 58)
  - 백용현 (공 64)
  - 서윤석 (의 62)
  - 석균범 (문 61)
  - 신영은 (문 65)
  - 오인환 (문 63)
  - 양응관 (수 62)
  - 우재형 (상 54)
  - 유달 (의 67)
  - 유영신 (인 74)
  - 유영준 (의 74)
  - 이건형 (수 54)
  - 이규양 (문 62)
  - 이내원 (사 58)
  - 이서구 (문 61)
  - 이선구 (문 65)
  - 이성배 (수 57)
  - 이연주 (치 88)
  - 이영덕 (사 61)
  - 이윤주 (상 63)
  - 이재승 (의 55)
  - 이중국 (의 52)
  - 이준영 (치 74)
  - 이진상 (공 57)
- 시카고**
- Ja H. Song
  - 강영국 (수 67)
  - 구경희 (의 59)
  - 김길준 (의 59)
  - 김동희 (공 66)
  - 김규호 (의 58)
  - 김병운 (문 65)
  - 김성일 (공 68)
  - 김승주 (간 69)
  - 김영우 (공 69)
  - 김용환 (공 71)
  - 김윤하 (공 66)
  - 김정수 (공 69)
  - 김호범 (상 69)
  - 김현주 (문 61)
  - 노영일 (의 62)
  - 민영기 (공 65)
  - 박동수 (정 58)
  - 박용수 (문 58)
  - 박정일 (의 61)
  - 박종희 (의 69)
  - 박창욱 (공 56)
  - 백운기 (문 56)
  - 서상현 (의 65)
  - 소진문 (치 58)
  - 송재현 (의 45)
  - 신석규 (문 54)
  - 안영학 (문 57)
  - 안시훈 (농 61)
  - 연경자 (약 65)

- 유기정 (간 72)
  - 육길원 (사 59)
  - 윤경순 (사 61)
  - 윤덕상 (치 62)
  - 윤봉수 (간 69)
  - 이경미 (미 69)
  - 이건정 (공 69)
  - 이덕수 (문 58)
  - 이대균 (공 75)
  - 이소희 (간 68)
  - 이승자 (사 60)
  - 이시영 (상 45)
  - 이유락 (공 48)
  - 이홍수 (약 51)
  - 故 이윤모 (농 57)
  - 이준수 (공 76)
  - 이종일 (의 65)
  - 장윤일 (공 60)
  - 전연학 (공 69)
  - 전현일 (농 62)
  - 조대환 (공 67)
  - 조중환 (의 63)
  - 최대한 (의 59)
  - 최해숙 (의 53)
  - 최희수 (문 67)
  - 최희일 (공 62)
  - 한재은 (의 59)
  - 홍건 (의 64)
  - 홍성일 (약 57)
  - 황소나
  - 황치룡 (문 65)
- 아리조나**
- 진명규 (공 70)
- 오레곤**
- 김영자 (간 56)
  - 박희진 (문 78)
  - 최용성 (의 55)
  - 한국남 (공 57)
  - 한영준 (사 60)
- 오하이오**
- 명인재 (치 75)
  - 박훈 (공 74)
  - 故 이영웅 (의 57)
  - 유덕영 (공 57)
- 워싱턴 DC**
- 강길중 (약 69)
  - 고의걸 (의 55)
  - 곽명수 (문 65)
  - 故 권기현 (사 53)
  - 권철수 (의 68)
  - 권오근 (상 58)
  - 김기봉 (공 63)
  - 김기환 (공 67)
  - 김내도 (공 62)
  - 김부근 (의 58)
  - 김영란 (사 58)
  - 김원호 (공 64)
  - 김종환 (치 88)
  - 김해식 (공 59)
  - 김희주 (의 62)
  - 나윤수 (사 57)
  - 남준일 (사 69)
  - 박인영 (의 69)
  - 박일영 (문 59)
  - 박찬모 (공 54)
  - 박후우 (문 61)
  - 배성호 (의 65)
  - 백순 (법 58)
  - 백용현 (공 64)
  - 서윤석 (의 62)
  - 석균범 (문 61)
  - 신영은 (문 65)
  - 오인환 (문 63)
  - 양응관 (수 62)
  - 우재형 (상 54)
  - 유달 (의 67)
  - 유영신 (인 74)
  - 유영준 (의 74)
  - 이건형 (수 54)
  - 이규양 (문 62)
  - 이내원 (사 58)
  - 이서구 (문 61)
  - 이선구 (문 65)
  - 이성배 (수 57)
  - 이연주 (치 88)
  - 이영덕 (사 61)
  - 이윤주 (상 63)
  - 이재승 (의 55)
  - 이중국 (의 52)
  - 이준영 (치 74)
  - 이진상 (공 57)
- 캘리포니아**
- 이중영 (음 58)
  - 정신호 (자 78)
- 커네티컷**
- 라찬국 (의 57)
  - 최창승 (의 58)
- 테네시**
- 권준희 (가 87)
  - 김경덕 (공 75)
  - 서갑식 (공 70)
  - 임효순 (간 71)
- 텍사스**
- 김장환 (공 81)
  - 유황 (농 56)
  - 윤영주 (문 60)
  - 조진태 (문 57)
  - 전양공 (의 63)
  - 전중희 (공 56)
  - 진기주 (상 60)
  - 최관일 (공 54)
  - 최성호 (문 58)
  - 최용천 (의 53)
- 플로리다**
- 김성준 (의 55)
  - 김종권 (의 63)
  - 박창익 (농 64)
  - 안창현 (의 55)
  - 염태근 (의 56)
  - 오석일 (의 64)
  - 원인순 (문 71)
  - 이민우 (의 67)
  - 이만택 (의 52)
  - 정의철 (의 55)
  - 하재청 (문 67)

- 이철수 (공 61)
  - 임광록 (간 72)
  - 전희순 (간 76)
  - 정영자 (사 56)
  - 정원자 (농 62)
  - 정평희 (공 71)
  - 조병선 (의 65)
  - 천권희 (간)
  - 최경수 (문 54)
  - 최대영 (의 73)
  - 최재귀 (미 63)
  - 한희생 (수 60)
  - 한광수 (의 57)
  - 홍영석 (공 58)
- 워싱턴주**
- 권영희 (약 66)
  - 김교선 (법 54)
  - 김인배 (수 59)
  - 김재훈 (공 72)
  - 류성열 (공 72)
  - 박진수 (간 57)
  - 변동혜 (법 58)
  - 안승적 (농 59)
  - 이문호 (문 64)
  - 윤태근 (상 69)
  - 이길승 (상 57)
  - 이명자 (간 74)
  - 이연주 (치 88)
  - 이희백 (의 55)
  - 정영자 (사 56)
  - 최준한 (농 58)
- 유타**
- 김인기 (문 57)
- 조지아**
- 김기중 (공 61)
  - 김영서 (상 54)
  - 김종구 (수 73)
  - 김현희 (간 59)
  - 남세현 (공 67)
  - 백낙영 (상 61)
  - 서광모 (공 65)
  - 성성모 (사 67)
  - 소용덕 (의 57)
  - Steve Sung
  - 오경호 (수 60)
  - 윤영돈 (법 59)
  - 은철수
  - 이중석 (의 54)
  - 임수암 (공 62)
  - 임한웅 (공 60)
  - 정선휘 (공 65)
  - 최덕순 (간 58)
  - 최종진 (의 63)
  - 한성수 (의 54)
- 캐롤라이나**
- 이중영 (음 58)
  - 정신호 (자 78)
- 커네티컷**
- 라찬국 (의 57)
  - 최창승 (의 58)
- 테네시**
- 권준희 (가 87)
  - 김경덕 (공 75)
  - 서갑식 (공 70)
  - 임효순 (간 71)
- 텍사스**
- 김장환 (공 81)
  - 유황 (농 56)
  - 윤영주 (문 60)
  - 조진태 (문 57)
  - 전양공 (의 63)
  - 전중희 (공 56)
  - 진기주 (상 60)
  - 최관일 (공 54)
  - 최성호 (문 58)
  - 최용천 (의 53)
- 플로리다**
- 김성준 (의 55)
  - 김종권 (의 63)
  - 박창익 (농 64)
  - 안창현 (의 55)
  - 염태근 (의 56)
  - 오석일 (의 64)
  - 원인순 (문 71)
  - 이민우 (의 67)
  - 이만택 (의 52)
  - 정의철 (의 55)
  - 하재청 (문 67)

-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 55)
  - 강준철 (사 59)
  - 김경희 (가 71)
  - 김국간 (치 64)
  - 김규화 (상 63)
  - 김정현 (공 58)
  - 김현영 (수 58)
  - 손재욱 (가 77)
  - 송성균 (공 50)
  - 서의원 (공 66)
  - 서중민 (공 64)
  - 성기호 (상 59)
  - 성정호 (약 59)
  - 신선자 (사 60)
  - 신영석 (공 76)
  - 안세현 (의 62)
  - 엄중렬 (미 61)
  - 오진석 (치 56)
  - 유영걸 (의 70)
  - 윤영수 (문 59)
  - 윤정나 (음 57)
  - 이규호 (공 56)
  - 이문호 (공 53)
  - 이성숙 (상 74)
  - 이수경 (자 81)
  - 이지훈 (미 57)
  - 이홍일 (상 70)
  - 장학량 (약 56)
  - 조화연 (공 64)
  - 전무식 (수 61)
  - 전방남 (상 73)
  - 전덕준 (상 63)
  - 정학량 (약 56)
  - 정흥택 (상 61)
  - 조정현 (수 58)
  - 주기목 (수 68)
  - 지흥민 (수 61)
  - 최종우 (상 63)
  - 최현태 (문 62)
  - 한동휘 (문 57)
  - 한수웅 (의 55)
  - 한용우 (보 70)
- 하와이**
- 김달욱 (사 55)
  - 김용수 (농 75)
  - 김을균 (공 63)
  - 안은식 (문 55)
  - 이재형 (수 61)
  - 최경윤 (사 51)
  - 하인환 (공 56)
- 하트랜드**
- 김경숙 (가 70)
  - 김재경 (공 64)
  - 김태찬 (음 80)
  - 김시근 (공 72)
  - 배규영 (사 68)
  - 오명순 (상 69)
  - 이광자 (간 63)
  - 이상강 (의 70)
  - 이주현 (미 92)
  - 이치현 (약 77)
  - 임소연 (음 91)
  - 정민재 (농 71)
  - 조원지 (문 63)
  - 호민선 (상 59)
- 휴스턴**
- 김영일 (의 55)
  - 박석규 (간 59)
  - 박유미 (약 62)
  - 박태우 (공 64)
  - 이길영 (문 59)
  - 이윤성 (수 81)
  - 이은애 (음 81)
  - 이학호 (수 59)
  - 진기주 (상 60)
  - 최관일 (공 54)
  - 최성호 (문 58)
  - 최용천 (의 53)
- 텍사스**
- 송유준 (의 64)
  - 전남일 (사 72)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5.6.30

일반후원금

<b>남가주</b>	
김동석 (음 64)	100
김병연 (공 68)	500
김성환 (의 65)	300
노진걸 (사 70)	200
송영두 (공 59)	200
박우선 (공 57)	300
박중수 (수 58)	15,000
박한영 (치)	100
백만일 (공 64)	200
백옥자 (음 71)	200
벤자민 홍 (문 53)	1,000
손기용 (의 55)	200
양은석 (음 70)	500
양승문 (공 65)	200
이법식 (공 61)	200
이상대 (농 85)	500
이영일 (문 53)	10,000
이재진 (문 55)	200
임낙균 (약 64)	11,000
전상욱 (사 52)	1000
정균희 (의 64)	200
한귀희 (미 68)	50
한정현 (치 55)	500
황현상 (의 55)	100
H & Y Lee	1,000
<b>뉴욕</b>	
곽선석 (공 61)	400
신응남 (농 70)	700
김광현 (미 57)	200
김복영 (간 69)	50
김해암 (의 52)	100
리준무 (음 65)	400
문석면 (의 52)	200
우용환	1,000
윤철 (문 54)	200
이준현 (공 48)	1,000
조남천 (사 59)	200
에드워드강 (문 60)	300
허선행 (의 58)	200
<b>뉴잉글랜드</b>	
윤상래 (수 62)	2,000
주창준 (의)	200
박중승 (의 56)	200
<b>네바다</b>	
김상순 (상 67)	200
<b>미시간</b>	
이성길 (의 65)	200
<b>북가주</b>	
이성원 (공 65)	200

<b>커네티컷</b>	
최창승 (의 58)	200
<b>샌디에고</b>	
임춘수 (의 57)	500
<b>워싱턴DC</b>	
강길중 (약 59)	500
권철수 (의 68)	200
김명철 (공 60)	200
민홍기 (문 61)	1,000
서윤석 (의 62)	200
박평일 (농 69)	4,000
백순 (법 58)	100
정평희 (공 71)	200
<b>시카고</b>	
강영국 (수 67)	200
소진문 (치 58)	200
최희수 (문 67)	100
<b>오하이오</b>	
명인재 (자 75)	200
<b>미네소타</b>	
김권식 (공 61)	1,500
황효숙 (사 65)	2,000
<b>조지아</b>	
이종석 (의 54)	200
성성모 (사 67)	200
최종진 (의 63)	500
한성수 (의 54)	200
<b>테네시</b>	
김경덕 (공 75)	200
<b>텍사스</b>	
황명규 (공 61)	200
<b>필라델피아</b>	
최창승 (의 52)	500
서중민 (공 64)	200
손재욱 (가 77)	500
이순희 (사)	300
<b>플로리다</b>	
김중권 (의 63)	400
오석일 (의 64)	200
<b>하트랜드</b>	
이상강 (의 70)	100,000
<b>휴스턴</b>	
진기주 (상 60)	2,000
<b>하와이</b>	
(고) 전영표 (문 55)	1,000

<b>업소록 후원금</b>	
<b>남가주</b>	
강호석 (상 81)	480
서동영 (사 60)	240
김원탁 (공 65)	240
이종묘 (간 69)	240
정균희 (의 64)	240
정재훈 (공 64)	240
하기환 (공 66)	480
김경무 (공 69)	240
김원탁 (공 65)	480
김일영 (의 65)	480
김자성 (의 79)	240
서동영 (사 60)	240
신동국 (수 76)	240
최무식 (약 66)	240
아주투어	500
이경희 (인 83)	240
이병준 (상 55)	240
이상대 (농 80)	240
이승훈 (상 74)	240
이종묘 (간 69)	240
이태영 (법 60)	480
<b>뉴욕</b>	
김승호 (공 71)	240
김치갑 (의 73)	240
박종호 (의 79)	240
신응남 (농 70)	480
석창호 (의 66)	240
이전구 (농 60)	240
<b>오레곤</b>	
박희진 (농 78)	240
<b>필라델피아</b>	
손재욱 (가 77)	240
<b>장학기금</b>	
<b>남가주</b>	
노명호 (공 61)	10,000
박원준 (공 53)	300
<b>뉴욕</b>	
선종철 (의 59)	100
신응남 (농 70)	400
홍성선 (약 72)	100
<b>미시간</b>	
고광국 (공 54)/	100,000
고국화 (공 56)	
<b>시카고</b>	
김현주 (문 61)	
이용락 (공 48)	3,000

<b>워싱턴 DC</b>	
권철수 (의 68)	200
강길중 (약 69)	500
<b>테네시</b>	
권준희 (가 87)	150
<b>필라델피아</b>	
손재욱 (가 77)	200
<b>하트랜드</b>	
이상강 (의 70)	10,000
<b>Website 광고</b>	
<b>남가주</b>	
김자성 (의 79)	1,000
<b>광고후원금</b>	
<b>남가주</b>	
김양희 (음 77)	900
김자성 (의 79)	1,500
류원 (대학원 74)	1,500
미주재단	20,000
박수경 (생 84)	4,500
서치원 (공 69)	1,500
신동국 (수 76)	300
이경희 (인 83)	300
이병준 (상 55)	3,000
이전구 (농 60)	1,500
하기환 (공 66)	2,500
홍훈정 (음 70)	300
<b>뉴욕</b>	
김승호 (공 71)	1,500
이전구 (농 60)	1,500
<b>인명록비</b>	
<b>뉴욕</b>	
신응남 (인명록 책값)	50
<b>모교발전기금</b>	
<b>남가주</b>	
박우선 (공 57)	300
<b>미네소타</b>	
황효숙 (사 65)	500
<b>뉴욕</b>	
신응남 (농 70)	200
<b>워싱턴 DC</b>	
권철수 (의 68)	100
최재귀 (미 63)	200
한광수 (의 57)	300

<b>오레곤</b>	
김영자 (간 56)	100
<b>필라델피아</b>	
손재욱 (가 77)	200
<b>Brain Network</b>	
<b>뉴욕</b>	
신응남 (농 70)	200
<b>미네소타</b>	
황효숙 (사 65)	500
<b>시카고</b>	
한재은 (의 59)	300
<b>워싱턴 DC</b>	
오인환 (문 63)	200
<b>필라델피아</b>	
손재욱 (가 77)	200
<b>나눔기금(Charity Fund)</b>	
<b>남가주</b>	
주선희 (문 66)	50
<b>뉴욕</b>	
조태환 (상 56)	100
신응남 (농 70)	300
<b>펜실베이니아</b>	
신의석 (공 53)	5,000
<b>필라델피아</b>	
손재욱 (가 77)	200
<b>제 33차 평의원 회비</b>	
<b>남가주</b>	
강미자 (음 62)	
김기형 (상 75)	
김병완 (공 58)	
김홍목 (문 60)	
이종묘 (간 69)	
이재진 (문 55)	
민일기 (약 69)	

박중수 (수 58)	
이창렬 (상 67)	
전경배 (의 69)	
조두연 (수 62)	
조정시 (공 60)	
임준택 (상 68)	
<b>뉴욕</b>	
신정윤 (공 60)	
신응남 (농 70)	
이희만 (간 70)	
조상근 (법 69)	
<b>뉴잉글랜드</b>	
윤상래 (수 62)	
<b>룩키타운틴스</b>	
권순영 (간 69)	
<b>커네티컷</b>	
김창수 (의 54)	
<b>조지아</b>	
김명숙 (약 69)	
<b>미시간</b>	
고광국 (공 54)	
고국화 (공 56)	
조병권 (공 64)	
<b>워싱턴 DC</b>	
박평일 (농 70)	
오인환 (문 63)	
<b>미네소타</b>	
황효숙 (사 65)	
<b>필라델피아</b>	
김현영 (수 58)	
윤정나	
<b>하트랜드</b>	
이상강 (의 70)	
김경숙 (가 70)	

**알 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에 마감  
 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17@g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100 (2023/7~2024/6, 1년)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24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 (2024/7~2025/6, 1년)	<input type="checkbox"/>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240 (2024/7월 ~ 2025/6월, 1년)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20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480 (2023/7월 ~ 2025/6월, 2년)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500 (디자인 추가시, 1년)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Color \$1,500	<input type="checkbox"/> \$500 (1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Black \$1,000	<input type="checkbox"/> \$1,000 (1년)
<input type="checkbox"/> 1/3 Size Color \$400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입학년도):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 신청서란을 전부 채워주세요. (성함, 영어 성함, 단과대학,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 현주소 등)

<b>남가주   CA</b>	
<b>공인회계사</b>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392	
<b>AAMKO Consulting Co.</b>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b>이강원 공인회계사</b>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b>JUN CHANG CPA &amp; Accounting Corp.</b>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b>STANLEY Cha, CPA</b>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b>임춘택 공인회계사</b>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b>김원철 &amp; 황기주 공인회계사</b>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b>권국원 공인회계사</b>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b>Kenneth G. Yum, CPA</b>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b>기계 / 기술 / 전자</b>	
<b>Link TV Media</b>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b>Turbo Air, Inc.</b>	
서치원 (공대 69)	
T: 310-900-1000	
4184 E. Conant St., Long Beach, CA 90808	

<b>Tayco Engineering, Inc.</b>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ess, CA 90630	
www.taycoeng.com	
<b>마켓</b>	
<b>Han Nam Chain Market</b>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b>변호사</b>	
<b>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b>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b>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b>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b>부동산</b>	
<b>Team Spirit Realty</b>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celee@gmail.com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b>식품 / 음식점</b>	
<b>자연나라 (Jayone Foods, Inc.)</b>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b>북창동 순두부</b>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b>의료 / 병원</b>	
<b>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b>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 siloamchung@gmail.com	
680 Wilshire Pl, #420, Los Angeles, CA 90005	
<b>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b>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Beverly Cardiology Group</b>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b>Choi Gilbert Pharmacy</b>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b>의료 / 치과</b>	
<b>황준오 DDS</b>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b>Seonho Ha Prosthodontics</b>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b>의료 / 동물병원</b>	
<b>Animal Medical Clinic</b>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b>Francis Animal Hospital</b>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b>Richmond Veterinary Hospital</b>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b>Van Buren Animal Hospital</b>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b>유통 / 운송 / 원자재</b>	
<b>SeAH Steel America, Inc.</b>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b>자동차 / 서비스</b>	
<b>A.P.W. 자동차 부품</b>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b>기타</b>	
<b>작가의 집</b>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b>ACCU Construction, Inc.</b>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Tustin, CA 92780	
<b>라 캐나다 한인교회</b>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b>San Bernardo Foot Clinic Inc.</b>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b>뉴욕   NY·NJ</b>	
<b>공인회계사</b>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b>리테일</b>	
<b>New York Golf Center</b>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b>변호사</b>	
<b>Law Offices E. PETER SHIN</b>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F: 718-463-6789	
35-15 159th Street, Flushing, New York 11358	
petershinesq@gmail.com	
<b>금융</b>	
<b>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b>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120 Sylvan Ave #303,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b>의료 / 병원</b>	
<b>백승원 위장내과</b>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b>석창호 위장내과</b>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b>이창석 내과</b>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b>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b>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haeahm@aol.com	
<b>박중호 소아과</b>	
박중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b>김치갑 통증병원</b>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NJ 07631	
<b>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b>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b>박범렬 소아과</b>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b>윤세웅 비뇨기과</b>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b>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b>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b>의료 / 치과</b>
<b>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b>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b>의료 / 동물병원</b>
<b>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b>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b>워싱턴 DC   MD·VA·MN</b>
<b>기계 / 기술 / 전자</b>
<b>Drivetech, Inc.</b>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b>EVS, Inc.</b>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b>C &amp;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b>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b>Fairway Asset Corporation</b>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패밀리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b>Wealthy &amp; Wise Family Office</b>
이태영(법대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Seoul Korea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조지아**  
**건축**

<b>Archipelago Construction LLC</b>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d. Butord GA 30519

**의료**

<b>Abbott Animal Hospital</b>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n, GA 30345

**H1C(Health 1 Care) / 김창석내과**

김창석 (의대 73)
T: 770-497-4188
10710 Medlock Bridge Rd, Ste 200, Johns Creek, GA 30097

**필라델피아 | PA**

**건축**

<b>THA Consulting, Inc</b>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 / 치과**

<b>Blue Bell Family Dentistry</b>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오레곤 | OR**  
**엔지니어링**

<b>Flonomix Inc.</b>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텍사스**

<b>UNIFAITH Co</b>
최성호 (문리대 58)
T: 281-269-6176
4260 Asteroid Ct. Houston Texas 77068
unifaith@hotmail.com

**뉴잉글랜드**

<b>URI</b>
이강원 (공대 66)
T: 401-874-2695
2 E. Alumni Ave. Kingston, RI 02881
leekw@uri.edu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기승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이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 213-388-4000**



# Edward Jo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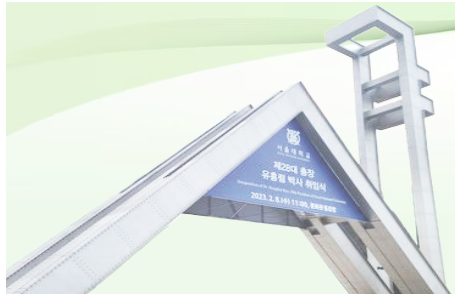
Financial Advisor

**Edward EK Yun**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edwardek.yun@edwardjones.com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 제17대 미주동창회

###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이영일(문) 이재진(문) 박종수(수)  
박창규(약) 이흥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종(농)  
남윤호(문)

### 차기회장 황호숙(사)

### 명예회장 노명호(공)

###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차),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강성진(문)

###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최응환(상)  
IT국장 : 나용화(생)/위원: 최경석(사), 박문수(공)  
Database 국장: 장병희(문)  
섭외국장: 임항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백옥자(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레(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 장학위원회

### 위원장: 한택택(공)

위원: 고 김영구(공), 신응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김광수(자)

### 회칙위원회

###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 나눔위원회

### 위원장: 이성숙(가)

위원: 정태광(공), 유미영(음)

### 감사: 박평일(농)

박현아(공)



###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4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차기 회장 채규환(법대 69) T: (818)489-7892  
Kchae100@yahoo.com

###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 79)  
T: (408)464-4502  
beomsupkim@gmail.com

###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송오석(공대 91) T: (858) 349-6674  
osoksong@gmail.com

###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임현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ft@hotmail.com

###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 (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 85)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 룩키타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김건호(공대 91)  
kunjhok@gmail.com

###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대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uon@hotmail.com

###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 미시간 MICHIGAN (Jul~June)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조규성(문리대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차기 회장 정성일(공대 86) T: (301)395-7285  
jeong05@gmail.com

### 뉴욕 NY/NJ (July~Jun)

김정필 (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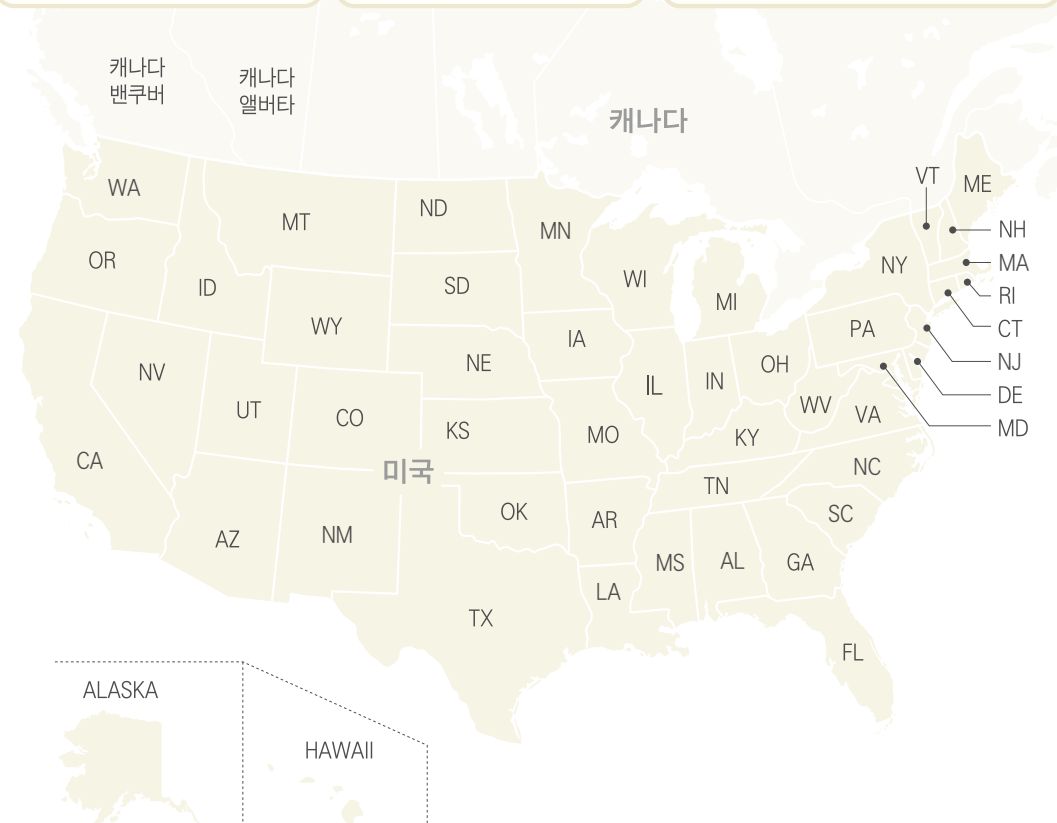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 조지아 GA/AL/MS (Jan~Dec)

최화진(음대 85)  
T: (828)242-7150  
hwajinkimdma@gmail.com

###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이주현(미대 92)  
T: (913)220-3021  
June.cho@gmail.com

###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 65)  
T: (561)962-5185  
yuhn@fau.edu

###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com@alum.utk.edu



**DUO America**  
since 1999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 듀오**

DUO America LA / NY [www.duoamerica.net](http://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NY 212-915-7115



**김원철&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김병연 (공대 68)

**작가의 집** 아트홀

**House of Writers, Art Hall**  
T: 213-380-3000 |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 건강한 최고의 식탁을 한남체인이 책임지겠습니다

가장 신선하고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만 품질이 좋지 않으면 절대 들이지 않고  
신선한 제품으로만 전해드리기 위해 오늘도 한남체인은 매일매일 달리겠습니다



**Los Angeles**  
LA점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orrance**  
토랜스점  
(310) 539-8899  
3030 W.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Fullerton**  
플러튼점  
(714) 736-5800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Diamond Bar**  
다이아몬드바점  
(909) 839-1121  
21080 W. Golden Springs Dr.  
Walnut, CA 91789

**La Palma**  
라팔마점  
(562) 924-7422  
4951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3

**Torrance(Del Amo)**  
토랜스 델라모점  
(424) 955-1234  
21305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New Jersey**  
뉴저지점  
(201) 224-0036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